

이탈리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3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5
2. 주요 산업 동향 /6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3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1
대한수입규제동향 /23
관세제도 /24
주요인증제도 /25
지적재산권 /28
통관운송 /3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5
- 외국기업 투자동향 /39
- 우리기업 투자동향 /4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5
- 진출형태별 절차 /48
- 투자입지여건 / 5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2
- 조세제도 /5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6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7
2. 물가정보 /59
3. 바이어발굴 /62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65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6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8
7. 이주정착 가이드 / 70
8. 출장가이드 /72

Italy



1995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이탈리아 공화국 (La Repubblica Italiana)
위치	남부 유럽
면적	301,333 km ² (한반도의 약 1.36배)
기후	지중해성 기후
수도	로마 (Roma)
인구	5,846만 명
주요도시	로마 (254만 명), 밀라노 (127만 명), 나폴리 (100만 명), 토리노 (87만 명), 제노바 (60만 명) 등
민족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크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남부에알바니아계, 그리스계소수 거주)
언어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라브어 병용)
종교	카톨릭(98%), 기타(2%)
건국(독립)일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국가원수: 조르쥬 나폴리타노 대통령(Giorgio Napolitano)
	취임일 2006.5.15
	수상: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 di) 취임일 2006.5.17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 EIU

나. 경제지표

GDP	1조7,730억 불(2005년), 1조8,540억 불(2006년), 2조 1,180억 불(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0.2%(2005년), 1.9%(2006년), 1.7%(2007년)
1인당 GDP	31,791 불(2006년), 35,386 불(2007년)
실업률	7.7%(2005년), 6.8%(2006년), 6.2%(2007년)
물가상승률	2.0%(2005년), 2.1%(2006년), 1.8%(2007년)
화폐단위	유로(EUR)
환율	US 1.256 불=1Euro(2006년 평균), US 1.361 불=1Euro(2007년 평균)
외화 표시 정부부채	27,255 백만 유로(2005년), 10,740 백만 유로(2006년)
외환보유고	255억 불(2005년), 257억 불(2006년), 240억 불(2007년)
산업구조	농수산업(1.9%), 제조업(22.8%), 건설업(6.1%), 서비스업(69.2%)(2006년)
교역규모	US\$3,724억(수출), US\$3,718억(수입), 무역흑자US\$6억(2005년) US\$4,171억(수출), US\$4,287억(수입), 무역적자US\$116억(2006년) US\$4,758억(수출), US\$4,821억(수입), 무역적자US\$63억(2007년)
교역품	수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신발, 귀금속 장신구 등
	수입: 원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의약품 등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 Eurostat, EIU

다. 韓-伊 관계

체결협정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61) 무역협정('65) 문화협정('70)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75) 경제협력 협정('84)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84)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92)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 ('92) 관광협력 협정('00) 한-이 사회보장협력 협정('05)
교역규모	○ 2005 년 - 42 억 9,700 만 불(우리나라 수출) - 27 억 7,800 만 불(수입): 무역흑자 15 억 1,900 만 불 ○ 2006 년 - 42 억 8,600 만 불(우리나라 수출) - 29 억 1,600 만 불(수입): 무역흑자 13 억 7,300 만 불 ○ 2007 년 상반기 - 21 억 6,400 만 불(우리나라 수출) - 17 억 불(수입): 무역흑자 4 억 6,400 만 불
교역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타이어, 합성수지 등(우리나라 수출) 의류, 의약품, 신발, 기계류, 자동차 부품(수입)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對伊 투자 - 2007 년 3 분기: 8 건, 195 만 불 - 1968 년~20067 년 3 분기: 99 건, 3 억 4,631 만 불 ○ 이탈리아의 對韓투자 - 2007 년 3 분기: 12 건, 1,173 만불 - 1962 년~2007 년 3 분기까지: 130 건 1 억 5,217 만 불
교민	총 교민 수 약 5천1백 여명 (대부분 유학생)

자료원: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2006년 4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로마노 프로디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 '우니오 네'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의 '자유의 집'을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좌파 연합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현실적으로 좌·우파가 의회를 분점, 확실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재임5년 동안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0.6%에 불과한 가운데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제로성장인 0.2%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경기침체가 프로디 정부의 개혁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GDP의 107%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측과의 약속인 재정적자율 3%이하를 지키지 못하는 등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불건전 재정은 이탈리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호 모순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현 정부는 EU 기준에 맞추어 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를 축소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운영하고 소득세를 현재의 43%에서 23-33% 수준으로 축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7-8% 에 달하는 실업률을 5-6% 대로 낮추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개별국가의 자치권과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해야 하는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하여 유럽중심주의 및 국제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

지역적으로 같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도모하고 있다. 특히 아랍국가들의 경우 이탈리아가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확보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의 대외 정책은 대체적으로 아랍권과의 지중해 연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우화관계 유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노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사절단 파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대 아시아 진출 및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 좌파 정부가 대다수인 EU에 EU 확대 및 범유럽 정부 구성 등 EU 강화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알바니아, 이라크, 터키, 쿠르드족 등 동구 및 중동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 고용,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통상 현안

- 이탈리아는 EU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 통상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EU간 통상 마찰 발생시 EU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반덤핑 규제 중 5건, 상계관세 규제 중 1건이다.

□ 반덤핑 규제 품목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의 PET)
- 철강제 관연결구류
- 양문형 냉장고 : LG ,대우일렉트로닉스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도 포함)

- 상계관세 규제 중 (1건): Hynix DRAM

나. 비자 및 체류 허가 취득

- 통상 문제 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비자 및 체류 허가 취득 문제이다. 이탈리아에서 장기 체류 시에는 이탈리아 경찰 당국이 발행하는 국내체류허가증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 또한 상사 주재원의 경우 입국 비자의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 한국-이탈리아 기술 부분 협력 강화

- GM 대우, 이탈리아의 엔진 업체와 친환경 디젤 엔진 공동 개발 (2005년도)
 - GM 대우는 이탈리아의 디젤엔진 전문 개발 회사인 VM모토리와 공동으로 2.0리터 SOHC 커먼레일 엔진을 개발에 성공하였다. GM대우는 동 엔진 개발을 위해 2004년 이탈리아 기업 VM모토리와 디젤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진 개발 및 공장 구축 등에 총 4,750억 원을 투자하였다.
-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2005년~2006년)
 - 대우 건설은 카타르 남부 메사이드 공업단지 내 연간 70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알파 올레핀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플랜트는 대우 건설과 이탈리아 업체인 Tecnimont이 공동으로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을 총괄하는 EPC형태로 공사를 수행한다.
 - 대림 산업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하라-바젤이 발주한 6억1,000만 불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신축 공사를 이탈리아 테크니몽과 공동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사우디 알 주베일에 연간 45만t 규모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대림 산업과 테크니몽의 지분율은 각각 54%, 46%이다.
 - 2006년도에는 SK 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이탈리아 테크니몽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쿠웨이트 국영석유화학회사인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로부터 12억2000만 불(1조2500억 원) 규모의 방향족 제품 생산 플랜트(Aromatics Complex Project) 공사를 수주하였다.
- 디자인 부분 협력 강화(2006년)
 -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브랜드인 베르사체와 공동으로 휴대폰을 디자인 하여 베르수스 핸드폰을 출시하였으며 LG전자는 프라다와 공동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동 연구를 추진해나게 되었다.

라. 양국 정상 상호 방문(2007년)

- 2007년 2월 노무현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기반 확대.IT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해운물류분야 협력 등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현지에서는 프로디 총리와 정상회담, 로마에서의 동포간담회,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있는 카스텔 로마노 테크노파크 방문등의 주요 활동이 있었다.
- 2007년 4월에는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17~19일 방한한다. 이번 프로디 총리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양국 수교 이래 양자차원에서는 최초의 방한이며, 2007년 2월 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이후 2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통상 투자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성장률

2006 년 이탈리아 경제는 전년도의 부진을 극복하고 1.9%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최대 수출국인 독일 경제의 호황, EU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고정 투자 증가, 선거로 인한 경기 호조 등이 성장률 상승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07 년에도 수출호조, 설비투자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연평균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2 년에서 2006 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7%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 경제가 2006 년 이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화강세, 중국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중저가 제품과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유로화 강세와 이탈리아 최대 수출국인 독일로의 수출둔화는 이탈리아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탈리아 주력 수출품인 섬유, 의류, 가구 산업 등 주요 소비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동향 및 전망 (2003~200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0.4	1.0	0.2	1.9	1.7	1.4

자료원: EIU

나.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정책과 유로 강세로 인해 이탈리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4 년 2.2%를 기록 한 데 이어 2005 년 2.0%, 2006 년에는 2.1%를 기록하였으며 2007 년과 2008 년에도 소폭 하락하여 각각 1.8%, 1.9%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로화강세와 최근 서비스시장 자율화 조치로 인한 서비스 가격인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2003~200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물가상승률(%)	2.7	2.2	2.0	2.1	1.8	1.9

자료원: EIU

다. 환율

유로화는 2002 년 중반 이후부터 대 달러 평가 절상되기 시작하여 2005 년 초에 미국 단기 이자율 상승과 EU 헌법 부결 등으로 인해 소폭 절하되었으나 여전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7 년에도 미국 경상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유입이 필요 하게 되어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당분간 유로화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달러: 유로 환율 동향 및 전망(2003~200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율	1.132	1.244	1.246	1.256	1.361	1.445

자료원: EIU

라. 경상 수지

2006 년 이탈리아의 경상 수지 적자는 GDP 의 2.8%로 2005 년 1.6%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2.4%를 기록하였다. 2006 년 경상 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는 고유가와 이탈리아 상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를 들 수 있다. 2007 년, 2008 년 향후 2 년은 역시 이 같은 추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2006 년 이후 3 년간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평균 2.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 수지 동향 및 전망(2003~200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상 지 (십억 불)	-19.4	-15.1	-27.7	-47.3	-61.0	-57.5
경상수지 (GDP 대비 %)	-1.4	-0.9	-1.6	-2.6	-2.9	-2.5

자료원: EIU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현황

이탈리아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산업구조와 유사하여 이탈리아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GDP 내 산업별 비중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농림수산업	2.8	2.7	3.0	2.9	2.8
제조업	27.9	27.6	27.3	26.8	27.0
서비스업	69.3	69.7	69.7	70.3	70.2

자료원: IMD 국가경쟁력보고서('07)

업종별 고용은 서비스업이 전체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전체고용의 30.8%를 차지 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업종별 고용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업종 별 고용 비중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농림수산업	4.7	4.5	4.4	4.4	4.2
제조업	30.7	30.6	30.7	30.7	30.8
서비스업	64.6	64.9	64.9	64.9	65.0

자료원: IMD 국가경쟁력보고서('07)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특히 전자기기, 운송용기기, 사무용기기, 섬유 등 제조업의 산업생산 부진이 더욱 두드러 졌으나 2006 년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2006 년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상업, 호텔, 운송, 통신부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탈리아의 제조업은 기계 등 몇몇 분야에서는 이탈리아 특유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의 취약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기별 부가가치 생산 변화 현황

(단위: %)

산업	2005					2006					2007
	1 Q	2 Q	3 Q	4 Q	연도	1 Q	2 Q	3 Q	4 Q	연도	1 Q
농림수산업	-10.8	0.5	4.0	-1.0		-3.6	-1.4	-0.7	2.5		3.6
	-3.0	-5.1	-2.0	-7.6	-4.5	-0.2	-2.2	-6.6	-3.3	-3.1	3.9
광공업 (건설업제외)	-0.4	1.2	-0.2	-0.1		2.0	-0.1	0.4	1.9		-0.9
	-2.8	-1.2	-0.7	0.6	-1.1	3.0	1.7	2.2	4.3	2.8	1.3
건설업	-0.9	1.8	0.9	-0.7		0.7	0.2	0.4	1.7		1.0
	-0.7	1.3	1.5	1.1	0.8	2.7	1.1	0.6	3.0	1.8	3.3
서비스업	0.2	0.4	0.4	0.0		0.5	0.9	0.3	0.8		0.5
	0.9	0.7	0.6	1.0	0.8	1.3	1.8	1.8	2.6	1.9	2.5
상업, 호텔, 운송, 통신	0.6	1.4	0.2	0.2		1.1	0.5	0.5	0.9		0.4
	1.4	2.1	2.5	2.4	2.1	3.0	2.0	2.4	3.1	2.6	2.3
금융 및 부동산	0.2	0.0	0.7	-0.5		-0.1	1.7	0.1	1.4		0.7
	0.1	-0.1	-0.5	0.4	0.0	0.1	1.8	1.3	3.2	1.6	4.0
총계 (증가율)	-0.3	0.6	0.3	-0.1		0.8	0.6	0.3	1.2		0.3
	-0.1	0.2	0.3	0.7	0.3	1.7	1.7	1.6	2.9	2.0	2.3

주: 각 산업의 첫 줄은 전분기 대비 변화율, 둘째 줄은 전년대비 변화율

자료원: istat

나. 수출 구조

이탈리아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중저급 기술 기반의 소비재 비중이 높아 가격탄력성이 높고 수출가격도 불안정한 편이다.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혁신에 기반하기 보다는 디자인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재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쉽게 모방하여 따라 올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쉽게 대체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위주의 산업 구조는 글로벌화된 경제구조에서 (1)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2)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의 어려움에 따른 R&D 및 설비투자 여력 부족 등의 큰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이 중국 및 동부유럽 국가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2001년 이후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이탈리아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명품 소비 붐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탈리아 기업들은 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서 광고와 마케팅, 판매망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통적인 가족형 소기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을 추진하는 이탈리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가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는 독일(13.1%), 프랑스(11.6%) 등 EU 15 개국(58.2%)에 집중된 반면,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등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아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탈리아 주요 교역국 현황 (2006년)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독일	13.1	독일	16.7
프랑스	11.7	프랑스	9.2
미국	7.5	네덜란드	5.5
스페인	7.2	벨기에	4.2
영국	6.0	미국	3.1
EU25	58.2	EU 25	55.3

이탈리아 제조업 주요품목 수출입 현황(2005년~2006년)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수출			수입		
	2005	2006	증가율(%)	2005	2006	증가율(%)
농림수산업	619	714	15.3	1,487	1,601	7.7
석유, 석탄 등 비가공 자원	38	68	78.9	8,773	8,298	-5.4
식음료	2,403	2,560	6.5	3,102	3,327	7.3
섬유 의류	4,138	4,266	3.1	2,873	3,120	8.6
가죽 및 가죽 제품	2,176	2,329	7.0	1,274	1,376	8.0
목재 및 목재 가공품	202	225	11.4	539	624	15.8
종이 출판	950	1,023	7.7	1,065	1,074	0.8
정유	1,495	1,971	31.8	1,404	996	-29.1
화학	4,864	5,284	8.6	6,721	7,740	15.2
고무 및 플라스틱	1,698	1,897	11.7	1,045	1,148	9.9
비금속류 광물	1,310	1,434	9.5	481	537	11.6
금속류 광물	5,027	6,605	31.4	5,546	8,134	46.7
기계	8,704	10,152	16.6	3,241	4,097	26.4
전기기계	4,045	4,446	9.9	6,009	5,678	-5.5
운송기기	5,158	5,978	15.9	6,830	7,390	8.2
가구	1,198	1,289	7.6	269	288	7.1
전기 가스	43	8	-81.4	385	317	-17.7
총액	45,967	52,333	13.8	53,062	57,855	9.0
EU 25 개국 총액	27,888	32,163	15.3	28,731	31,632	10.1
전체 비중	61	61	-	54	55	-
비 EU 국가	18,078	20,171	11.6	24,331	26,223	7.8
전체 비중	39	39	-	46	45	-

자료원: ISTAT

이탈리아 제조업 주요품목 수출입 현황(2006년 1월~8월-2007년 1월~8월)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수출			수입		
	2006	2007	증가율(%)	2006	2007	증가율(%)
농림수산업	2.7	3.0	9.4	6.3	6.4	2.2
석유, 석탄 등 비가공 자원	0.3	0.4	25.8	35.7	33.1	-7.3
식음료	11.2	11.9	6.2	14.1	14.8	4.8
섬유 의류	17.7	18.5	4.2	11.4	11.9	4.2
가죽 및 가죽 제품	9.0	9.6	7.2	5.0	5.3	5.1
목재 및 목재 가공품	1.0	1.1	13.7	2.5	2.8	11.0
종이 출판	4.3	4.5	5.5	4.5	4.8	5.7
정유	7.0	8.4	18.7	4.7	4.2	-11.5
화학	20.9	22.5	7.8	28.9	31.8	10.1
고무 및 플라스틱	7.8	8.5	9.7	4.5	4.9	9.7
비금속류 광물	6.2	6.6	5.7	2.2	2.4	10.6
금속류 광물	42.1	48.6	15.3	26.1	33.6	28.8
기계	8.7	10.2	16.6	14.9	17.6	18.1
전기기계	18.7	20.2	8.0	25.3	24.9	-1.4
운송기기	23.1	26.9	16.5	28.2	31.1	10.5
가구	5.6	6.1	9.5	1.1	1.3	13.4
전기 가스	0.1	0.0	-63.5	1.5	1.4	-5.6
총액	209.5	235.6	12.5	225.4	241.8	7.3
EU 25 개국 총액	126.2	141.8	12.3	126.2	136.9	8.5
전체 비중	60.2	60.2	-	56.0	56.6	-
비 EU 국가	83.3	93.9	12.7	99.2	105.0	5.8
전체 비중	39.8	39.8	-	44.0	43.4	

자료원: ISTAT

다. 이탈리아 산업의 특징

1) 산업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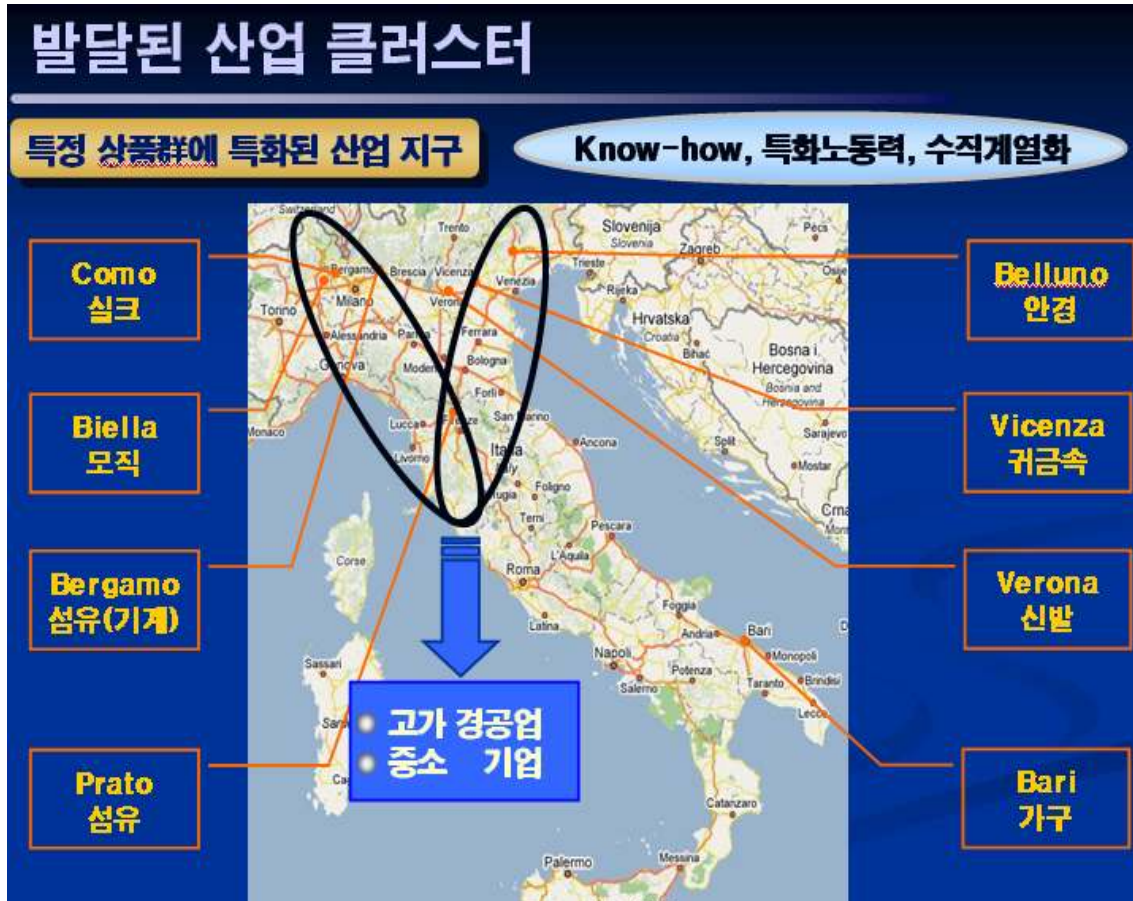
2 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소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일정 지역에 하나의 집합체(Cluster)를 형성하고 있다.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울, Ascoli Piceno 지역 및 Verona 지역의 신발, Carpi 지역의 니트웨어, Treviso 지역의 여성의류, Como 지역의 실크, Biella 지역 및 Bergao 지역의 섬유 기계, Marche 지역의 주방기기 등이다.

이들 클러스터는 기업(생산), 산업협회(법 및 제도 관련 업계 이익 옹호), 지역 중소 은행(지역 산업 자금 조달)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발전의 모범사례로 경영학과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클러스터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해외 시장 마케팅 능력 과 대규모 R&D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용 100 명 이하의 기업이 전체 기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31%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EU15 지역 중소기업의 약 1/4 이 이탈리아에 분포하고 있다.

2007 년 FT 선정 500 대 기업에 영국 기업 41 개, 프랑스 기업 32 개, 독일 기업 20 개, 스위스 기업 12 개가 포함된 데 반해 이탈리아 기업은 8 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 8 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4 개사, 통신 1 개사, 전기 1 개사, 석유 1 개사, 제조업 1 개사로 거의 대부분 서비스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의 발달된 산업 클러스터








2) R&D 투자 부진 및 혁신 역량 부재

이탈리아의 R&D 투자지출/GDP 비율은 1.1%로서 주요 경쟁국인 독일(2.5%), 프랑스(2.1%), 영국(2.6%)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종업원 천명당 연구원수도 2.9 명으로 스위스 7.1 명, 프랑스 5.8 명, 독일 5.7 명, 네덜란드 5.6 명을 크게 밑돈다.

또한 R&D 투자가 섬유, 기계장비 등 전통적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 내 첨단 및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 이탈리아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기업들이 대규모의 R&D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2007 년도 IMD 국가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제조업 수출 가운데 Hi-tech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영국 28.0%, 스위스 21.7%, 프랑스 20.0%, 독일 16.9% 보다 낮다.

유럽 주요국 R&D 투자 현황 비교

유럽 주요국 R&D 투자현황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총 R&D 투자 /GDP	1.10%	2.51%	2.13%	2.55%	2.98%
기업R&D투자 /GDP	0.55%	1.76%	1.32%	1.09%	2.29%
총 R&D 투자 (달러)	189억	700억	452억	548억	236억
기업R&D투자 (달러)	104억	490억	280억	234억	181억

※ 자료원: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07)

라. 주요 산업 동향

1) IT 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장의 경우 2006 년 기준 시장규모가 약 68 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중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49 억 달러, 자국 생산이 51 억 달러, 수출이 32 억 달러 전반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최신 IT 제품에 대한 선호와 수용도가 높아 IT 제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다. (이탈리아 휴대폰 가입자 수: 인구 대비 134%('06))

컴퓨터 관련 제품은 노트북, 메인 프레임, 서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휴대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수요도 높다. 우리나라도 무선전화기, LCD 모니터, 디지털 TV,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국내 L 사: PDP TV 시장점유율 1 위(22.2%), LCD TV 시장점유율 2 위(13.9%)('06)
- 01 년~05 년 무선전화기 수출증가: 103 백만 불→1,368 백만 불

PC 나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는 미국, 일본, 대만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최근 대만기업의 선전인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

2) 의료기기 산업

2006 년 기준 전체시장규모는 약 46 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수입이 약 44 억 불을 차지하여 수입의존도가 높다. 주로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한 미국 및 인근 유럽선진국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며 주요 최종 구매층은 이탈리아 전체 의료지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공공의료 기관이다. 고급의료장비의 경우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을 선호하고 범용 장비의 경우는 중국 등 중저가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의 경우 사용연수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이탈리아 의 행정처리가 늦은 편으로 교체 빈도는 느린 편이다. 현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느리고 이탈리아 내에 지사나 대리인 없이는 공공기관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각 제품에 맞는 형태의 CE 마킹을 획득해야 하며 대금 지급이 늦는 관계로 이탈리아 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자금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3) 섬유 산업

1995 년 225 억 유로 수출, 총 수출액의 11.3%, 2006 년 276 억 유로 수출, 총 수출액의 8.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마케팅과 판매 등 시장 조성, 중소기업은 대기업 의 하청을 받아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상당히 수평적 협업관계로 소재, 기획, 생산, 유통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 및 디자인관련 제품이 중국 및 여타 개도국의 저가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워 관련 업체 수 및 근로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관련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제품의 해외생산, 고품질 유지, 회사규모 확대 등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향후 이탈리아 섬유시장은 친환경 바이오 섬유, 인테리어 및 산업용 불연성 섬유, 항균섬유, 스포츠 고 흡수성 방수원단 등과 같은 산업용 기능성 섬유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4) 자동차 부품 산업

06 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23 억 불로 이 중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8 억 불로 분석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시장에서 Aftermarket 와 Original Equipment 의 점유 비중은 35:65 이며 수입의 비중은 Aftermarket 부분이 높다. 또한 디젤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최근 SUV 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관련 부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차량 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차 1 대당 1.69 명) 이용 연수가 높은 차량이 많아(운영 중인 차량의 1/3 이상이 10 년 이상 이용) 자동차 부품 시장성이 좋다. 다국적 자동차 부품 기업은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범용화된 부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규모가 약 15 억 불인 자동차 튜닝 및 액세서리 부분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IT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

5) 보안기기 산업

2006 년 기준 30 억 불 규모의 시장으로 이중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은 약 1 억 2 천만 불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낮다.

최근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항구용 보안 장비 및 가정용 안전 장비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CCTV 등 전통적인 보안장비 시장은 동유럽 등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생체인식 및 IT 기술 기반 제품과 같이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Access Control(출입통제) 장비로 RFID 기술과 생체 인식 기술 이용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용 보안 장비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탈리아인구 1 천 7 백만 명이 가정용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가구는 20.8%에 이르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탈리아 자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품 판매 후 A/S 를 통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통상 관련법규는 전반적인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무역 협정 역시 EU 방침을 따르고 있다.

EU 주요 무역 협정

EU 회원국 Treaty of Rome	- 모든 분야 포함
안도라 공국 Exchange of Letters(Customs Union)	- 1991 년 발효 -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 동맹
터키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결정 (Customs Union)	- 1995 년 발효 -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 동맹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ropean Economic Agreement	- 1994 년 발효 - 서비스 교역포함
스위스	- FTA, 1973 년 발효
Euro-Med국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 튀니지	- Association Agreement
칠레 Association Agreement	- 2003 년 발효 - 협정문에는 서비스, 투자 포함, 현재 상품분야만 발효
멕시코 EC-Mexico Joint Council 결정	- 2000 년 발효 - 서비스, 투자, 지적권 포함
남아공 Trade, Development&Cooperation Agreement	- 2000 년 발효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 무역 동향

2003년까지는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수출입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上
수출	269,065.2	264,617.3	284,415.1	299,925.1	326,994.1	176,783.80
수입	261,226.7	263,012.8	285,635.4	309,292.9	348,349.4	184,136.70
수지	7,838.5	1,604.5	-1,220.3	-9,367.8	-21,355.3	-7,352.9

자료원: Eurostat

□ 무역구조

주요 수출품으로는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화학 등의 기술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 등이 있다.

2006년 주요 이탈리아 수출품 현황

품목	금액 (십억 불)
기계 및 전기기기	120.5
섬유, 의류, 가죽제품	51.1
운송기기	44.2
화학제품	40.8
식 음료	22.2

자료원: EIU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 원유 및 원자재, 전자제품, 부품, 기타 일반 소비재 등이 있다.

2006년 주요 이탈리아 수입품 현황

품목	금액 (십억 불)
기계 및 전기기기	79.6
에너지 관련 품목	65.9
운송기기	54.2
화학제품	55.8
식 음료	27.5

자료원: EIU

- 주요 수출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며 EU 25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8.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있으며 EU 2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5.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2006년 이탈리아 주요 교역국 현황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독일	13.1	독일	16.7
프랑스	11.7	프랑스	9.2
미국	7.5	네덜란드	5.5
스페인	7.2	벨기에	4.2
영국	6.0	미국	3.1
EU25	58.2	EU 25	55.3

자료원: Eurostat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이탈리아-한국 교역 현황

- 2006년 기준 대 이탈리아 수출은 42억 9천만 달러, 수입은 29억 2천만 달러로 교역수지 흑자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이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분기
수출	2,217	2,561	3,408	4,297	4,286	2,897
수입	2,274	2,382	2,500	2,778	2,916	2,602
수지	-57	179	908	1,519	1,373	295

자료원: KITA

나. 對 이탈리아 수출

- 한국의 對 이탈리아 양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및 무선전화기이며 이외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선박, 합성수지, 기계류, 타이어 등이 있다.
- 2006년에는 한국의 수출주력상품인 무선전화기 수출이 전년대비 32%나 감소하고 승용차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하지만 냉연강판, 합성수지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하였다.
- 2007년 9월 현재 한국의 對 이탈리아 수출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29억 9,718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26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2007년 9월 기준 수출액 1위 품목은 승용차로 6억 5,866만 달러 수출이 되었으며 2위는 무선전화기(4억 6,874만 달러), 3위는 선박(1억 8,774만 달러), 4위는 냉연강판(1억 7,772만 달러)로 나타났다.
- 승용차(-11.4%), 무선전화기(-34.3%), 선박(-19.3%) 등 기존 수출 주력상품의 수출감소 폭이 커 철강제품 및 공작기계가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2004년~2007년 3분기 對 이탈리아 수출

(단위: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2006년		2007년 3분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총액			4,286,259	-0.2	2,897,177	-3.6
1	7411	승용차	1,196,294	3.6	658,662	-11.4
2	8121	무선전화기	929,698	-32.0	468,741	-34.3
3	7461	선박	261,000	-2.6	187,736	-19.3
4	6133	냉연강판	229,046	435.1	177,724	65.2
5	2140	합성수지	141,935	75.3	120,406	18.4
6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94,792	43.7	90,865	39.2
7	6132	열연강판	57,286	1603.7	55,417	1866.6
8	7251	건설중장비	57,206	35.3	50,580	28.3
9	3203	타이어	60,474	14.8	50,334	8.2
10	8230	냉장고	67,473	0.0	50,118	-0.8

자료원: KITA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4년		2005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총계			3,408	33.1	4,297	26.1
1	8121	무선전화기	753	188.1	1,368	81.7
2	7411	승용차	906	30.4	1,155	27.5
3	7461	선박	212	-24.7	268	26.3
4	8242	에어컨	159	79.4	82	-48.4
5	2140	합성수지	80	-2.1	81	0.8
6	8230	냉장고	61	27.1	67	10.1
7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41	5.7	66	61.7
8	3203	타이어	50	36.4	53	5.7
9	8111	유선전화기	3	2.4	43	1,354.80
10	6133	냉연강판	56	105.6	43	-24.2

자료원: KITA, 순위는 2005년 기준

다. 對 이탈리아 수입

-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자동차부품, 의류와 의약품이며 이 밖에 기계, 가죽제품, 모직물, 대리석, 정밀화학원료, 신발 등도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06년 기준 對 이탈리아 수입은 직물제 의류가 가장 많아 1억 4천 9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의약품, 자동차부품, 편직제 의류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
- 2007년 9월 기준 對 이탈리아 수입은 의약품이 가장 많아 1억 4,98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물제의류, 자동차부품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 2007년 기준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 중 의류.패션 관련 제품이 4개, 기계 제품이 4개를 차지하고 있어 이탈리아 수입품목은 주로 의류.패션 및 기계제품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2004년 ~ 2007년 3분기 對 이탈리아 수입

(단위: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2006년		2007년 3분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 총액			2,915,557	5.0	2,601,621	17.4
1	2262	의약품	137,911	23.8	149,890	64.9
2	4412	직물제의류	149,413	18.6	138,649	20.1
3	7420	자동차부품	93,205	-38.4	85,390	24.9
4	2289	기타 정밀화학원료	74,293	12.4	71,856	24.8
5	5132	가죽제가방	63,424	38.9	71,242	50.6
6	6141	철강관	39,634	-15.0	70,858	138.4
7	7111	원동기	75,118	49.2	66,900	30.9
8	4411	편직제의류	77,718	-1.1	65,029	2.8
9	5129	기타신발	62,289	13.7	58,241	18.3
10	7112	펌프	43,808	-37.1	57,082	69.4

자료원: KITA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4년		2005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 총계			2,500	5	2,778	11.1
1	7420	자동차부품	139	55.8	151	9.2
2	4412	직물제의류	121	-1.8	126	4.3
3	2262	의약품	121	12.1	111	-8.2
4	4411	편직제의류	63	-10	79	24.3
5	3319	기타가죽	96	-25.4	73	-23.2
6	7112	펌프	41	-34.8	70	68.5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5	10.5	66	2.2
8	7512	밸브	95	126.8	65	-32
9	5129	기타신발	49	-9.6	55	11.7
10	7901	기타기계류	35	-17.8	51	45.4

자료원: KITA, 순위는 2005년 기준

라. 2007년 3분기 기준 對伊 수출 특징

1) 韓-伊 교역현황

- 2007년 3분기 기준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28억 97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26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한-이 교역규모는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4년 교역규모 50억 달러, 2005년 교역규모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도에도 72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해 2년 연속 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역시 현재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역규모 73억 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03 년 이후의 급격한 증가세는 2006 년 이후 확실히 둔화되고 있으며 2006 년, 2007 년은 소폭이나 2 년 연속 수출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7 년 3 분기 기준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승용차로 6 억 5866 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이 무선전화기로 4 억 6874 만 달러, 3 위가 선박으로 1 억 8774 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06 년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무선전화기, 선박이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 3 대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2)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의 對伊 수출비중 50% 미만으로 하락

- 2003 년 수출비중 48.3%를 기록한 이후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 3 대 주력품목인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의 수출비중은 3 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005 년 처음으로 수출 40 억 달러를 돌파할 때는 3 대 품목 수출비중이 65%에 육박했다.
- 하지만 2007 년 3 분기 기준 3 대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은 2003 년 이후 최저 수준인 45.4%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 등 3 대 품목 수출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 특히 무선전화기 수출은 전년대비 34% 줄어 들었다. 무선전화기 수출은 이미 작년에도 전년 대비 32% 감소한 바 있어 그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의 對伊 수출점유율

(단위: 천달러)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승용차	694,527	905,948	115,4603	1,196,294	658,662
무선전화기	261,326	752,822	1,368,026	929,698	468,741
선박	281,882	212,212	267,955	261,000	187,736
소계(A)	1237,735	187,982	279,584	2,386,992	1,315,139
전체수출액(B)	256,558	3407,536	4,296,945	4,286,259	2,897,177
비중(A/B)	48.3%	54.9%	64.9%	55.7%	45.4%

자료원: KITA, 2007 년은 3 분기 기준

- 더욱이 2007 년 1 분기까지 수출액 기준 3 위를 기록한 선박이 2007 년 2 분기 처음으로 수출액 기준 4 위로 밀려나고 냉연강판이 3 위를 차지했으나 3 분기 기준 다시 3 위로 복귀했다.
- 냉연강판의 경우 최근 3 년간 수출증가세가 매우 커 2005 년 4200 만 달러에서 2006 년 2 억 2900 만 달러, 2007 년 2 분기에는 수출액 1 억 69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 순위도 2005 년 10 위에서 2006 년 4 위, 2007 년 2 분기 3 위로 급속히 상승했다. 2007 년 3 분기 다시 4 위로 내려 앉았으나 수출액 1 억 7772 만 달러로 전년대비 65%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 무선전화기 對 EU 주요국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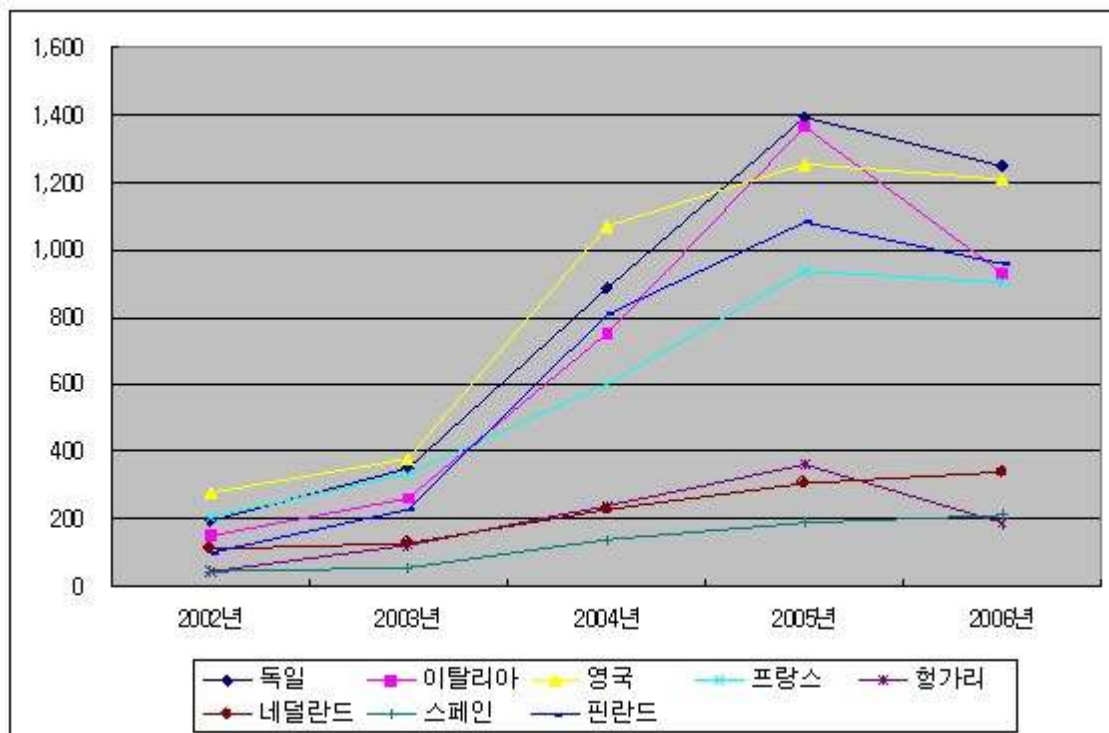
- 2005 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선전화기 對 EU 수출은 무선전화기 5 대 EU 수출국가인 독일·이탈리아·영국·핀란드·프랑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2006 년 들어 무선전화기의 對 EU 수출은 상기 5 대 수출국가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5.5% 감소했다.

- 하지만 2007 년 들어 독일·이탈리아로의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로의 수출이 회복되고 헝가리·네덜란드·스페인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무선전화기의 대 EU 수출은 2006 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핀란드로의 수출통계가 매우 작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2006 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2006 년, 2007 년 3 분기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伊 수출은 각각 32%, 34%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무선전화기 對 EU 수출회복세와는 다소 상충되는 상황이며 올해에도 수출감소를 시현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 같은 무선전화기 對伊 수출 감소는 EU 전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이탈리아 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무선전화기의 對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예상
독일	197	349	887	1,391	1,248	795	1,060
이탈리아	150	261	753	1,368	930	469	625
영국	281	381	1,070	1,254	1,207	1,029	1,372
핀란드	102	227	809	1,079	959	75	100
프랑스	205	333	603	937	904	960	1,280
헝가리	45	121	241	363	192	431	575
네덜란드	110	129	226	304	342	305	407
스페인	42	58	140	189	211	280	373
소계(8개국)	1,132	1,859	4,729	6,885	5,993	4,344	5,792
비중	83.4%	91.0%	86.3%	88.6%	91.3%	90.4%	90.4%
EU	1,358	2,042	5,480	7,767	6,566	4,803	6,404



자료원: KITA

□ 철강제품 및 산업기계의 괄목할만한 수출 증가

- 2002 년 이후 철강제품과 산업기계의 對 이탈리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철강제품의 수출증가는 매우 두드러져 2006 년과 2007 년에는 2 배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 철강제품의 경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7 년 3 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65%, 1866% 증가했다. 특히 냉연강판의 경우 2006 년도 수출이 전년대비 4.4 배 늘어나 2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수출 역시 크게 증가해 수출액 2 억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기계의 경우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건설중장비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강제품 및 산업기계 對伊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철강제품	77,838	108,39	119,797	129,088	433,637	417,652
증가율	30.3	29.6	18.8	7.8	235.9	93.1
산업기계	73,182	73,903	84,165	130,150	191,16	173,951
증가율	-2.1	1.0	13.9	54.6	46.1	31.4

자료원: KITA, 2007 년은 3 분기 기준

□ 합성수지 및 타이어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

- 합성수지와 타이어는 연도별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 특히 합성수지의 경우 2006 년 처음으로 수출 1 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초로 수출 1 억 5000 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수지 및 타이어 對伊 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합성수지	82,066	80,347	80,989	141,935	120,406
타이어	36,516	49,820	52,671	60,474	50,334

자료원: KITA, 2007 년은 3 분기 기준

□ 향후 전망

- 전반적으로 이탈리아 수출액은 2005 년 이후 3 년간 40 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0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對伊 수출을 주도해온 승용차, 무선전화기의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작년, 제작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철강제품의 수출도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 하지만 합성수지·타이어·산업기계·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수출은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對伊 수출은 2005 년, 2006 년 2 년 연속 40 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3 분기 들어 수출이 다소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對伊 수출은 40 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2006 년 기준 EU 국가 가운데 독일·영국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 이미 우리의 EU 3 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양국간 교역규모 역시 2003 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돼 2005 년, 2006 년 2 년 연속 교역규모 70 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에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역규모 75 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5 년 수출비중 65%까지 육박했던 승용차-무선전화기-선박의 수출의존도는 올 들어 2003 년 이후 최저 수준인 45% 대를 기록했다. 합성수지·철강·기계류 등 소재·장비 관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수출품목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합성수지 수출은 2006 년 최초로 1 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에도 수출증가율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으며 냉연강판의 수출증가도 괄목할만하다.
-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對伊 수출품목은 승용차·철강·합성수지·기계설비 류 등 대기업 위주의 중공업제품으로 구성 됐으며 주력수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해에 수출액 상위 3 대 품목인 승용차, 무선전화기, 선박의 수출비중은 여전히 전체 수출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 이에 비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패션제품과 기계류가 대부분으로 주로 경공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돼 있음. 지난해 수입액 상위 10 대 품목 중 5 개가 패션제품, 3 개가 기계류였고 올해 3 분기 역시 수입액 상위 10 대 품목 가운데 패션제품과 기계류가 각각 4 개씩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품목의 수입비중이 높지 않아 작년 수입액 상위 2 대 품목인 직물제 의류와 의약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일반

- EU 회원국간에는 1993 년 EU 통합 이후 무관세로 자유롭게 수입되며, 다만, 의약품, 살아 있는 동식물, 식품에 대해서만 특별검사를 거치게 된다. EU 역외 국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으나 철강과 같이 EU 합의에 의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나 ‘멸종 위기의 종 거래에 관한 워싱턴협약 (Washingto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유형에 따라 수입 제한조치가 발동 되기도 한다.
- 이탈리아 수입 제한 품목은 금, 방위산업관련 물품, 보호동물 및 식물, 기타 민감 제품 등이며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통 반덤핑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나. 수입 금지 품목

- CuSO₄ 를 포함하고 있는 완구 류
-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에 금속칼날이 들어 있는 제품
- 환각 및 마약류
- 석면 섬유
- 수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온도계
- L-tryptophane 및 L-tryptophane 함유물

다. 수입 규제 품목

- 인간 사체, 인간 장기, 태아
- 폭발물
- 무기류 및 무기 부분품
- 냉동보관이나 기타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하기 쉬운 식품 및 음료
- 살아있는 동식물
- 복권 및 도박 기기
- 수집용 화폐 및 우표
- 유해 폐기물
- 죽은 동물 사체

라. 수입 허가 품목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Ministero del Comercio Estero로부터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우유 및 유제품
- 생선
- 밀 등 곡류
- 채소
- 철강
- 섬유 및 의류
- 무기
- 폐기물
- 방사선 물질 및 원자로

마. 수입쿼터

- EU 는 EU 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 (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 되었으며 섬유에 대한 수량 제한과 관련, WTO 「섬유 및 의류협정(ATC)」에 따라 EU 는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 년부터 섬유 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벨기에 국가정보의 ‘수입규제일반’편을 참조 바람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반덤핑 규제품목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반덤핑 규제 및 상계 관세 규제는 EU 차원의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2007년 12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반덤핑 규제품목은 총 5건이다.

- 철강제 관연결구류
 - 반덤핑관세율 44%,(2007.8월 재심 개시)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에스탈·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도 포함)
 - 반덤핑 관세율: 49%

나. 상계관세 규제 중: DRAM(Hynix)

다. 수입규제 사례

□ 양문형 냉장고

- 2005년 5월 가전업체 월플의 이탈리아 현지법인이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가 덤핑 가격으로 유럽에 수입되고 있다며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3사를 덤핑 혐의로 EU에 제소하였다.
 - 한국산 제품의 유럽 양문형 냉장고 시장 점유율은 2000년 초만 해도 10%대에 그쳤으나 이후 몇 년간 비약적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제소가 제기될 당시 LG전자와 삼성 전자는 각각 영국 시장점유율 45.6%, 34.3%로 증가하였고(2005년 1월~4월 기준) 독일의 경우도 LG전자 44.9%, 삼성전자 34.4%, 대우일렉 7.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하였다. (2004년 12월~ 2005년 5월 기준)
- 2006년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가 덤핑 혐의로 6개월간 잠정 관세를 부과 받게 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한국의 가전 3사가 생산한 400L 이상, 문 2개 이상의 냉장고에 4.4%~14.3%까지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 2006년 7월 EU 집행위는 한국산 400L급 이상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한국 가전기업에 통보하였다. 최종 덤핑관세율은 예비판정보다 다소 1.9%로~ 13.7%로 낮아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덤핑관세율이 2.0% 미만인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반덤핑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었다.

- 2006년 8월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가운데 LG와 대우의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12.2%, 3.4%로 확정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현재 한국업체들은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5. 관세 제도

가. 제도일반

-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EU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 EU의 대외 공동관세는 EU 준 회원국에 적용하는 특혜관세, GATT 가맹국 및 통상협정 체결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 등의 협정관세, 개도국에 공여하는 GSP(특혜관세) 및 기타 제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EU 공동관세의 과세기준은 종가세로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세가격

- 과세가격이란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 표준, 즉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품에 대하여 합당한 가치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 관세 산출 방식

- 종가방식: 이탈리아에 수입된 거래가격(EURO)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
- 종량방식: 이탈리아에 수입된 수량(개, 킬로그램)에 단위수량당 관세를 곱해 산출
-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제품가격, 보험료, 운송비 등이 포함된 가격

라. 관세 검색 웹사이트

- EU 회원 국가(Italy 포함)의 관세율 조회 가능 웹사이트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

마. EU공동관세율 검색방법

1)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을 접속한다.

- HS Code 를 통해 검색할 경우 "Taric Code"를 클릭 하는데 해당 품목의 HS Code 6 자리를 미리 아는 경우, HS Code 6 자리를 입력 후 옆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품목명에 해당하는 HS Code 를 검색한 후 확인한다.

- HS Code 6 자리까지는 국제공용이며, 7-10 자리까지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 8 자리를 모두 입력할 경우 해당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 품목명(키워드)을 통해 검색할 경우 "Tariff Description"을 클릭, HS CODE 검색을 한다.

2) Country of origin란 목록상자버튼을 눌러 알파벳순으로 나와있는 국가명에서 "South Korea - KR"를 찾아 클릭한다.

3) 하단 "Duty Rates" 버튼을 클릭한다.

바. 주요 품목 관세 현황

- 화학 및 플라스틱: 대부분 6.5%
- 자동차용 타이어: 4.5%
- 의류: 12%, 편직물류: 8%, 폴리에스터 섬유: 4%
- 금속 및 비철금속: 대부분 무관세
- 기계류: 대부분 低관세(세탁기: 2.7%, 공기청정기: 1.7%, 에어컨: 2.2% 등), 볼베어링은 8%
- AV 제품: CTV, CRT 등 대부분 14%대
- 운송기기: 8%이상 (승용차: 10%, 오토바이: 8%)
- 자동차부품: 4.5%
- 선박: 무관세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 'European Communities'의 불어식 표기인 'Communaut Europeen'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며, EC 국가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EC 지역에서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하다.
-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 이사회 관련 규정 (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gulations)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제 3 의 인증기관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즉 CE 마크는 각 대상 품목별 지침(directive)에 정해진 인증절차 (module)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지침에서 인증기관 (Notified Bodies)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CE 마크는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지만, 특정 지침에 의해 포장 또는 동봉되는 기술 자료에 인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CE 마크는 규정과 지침의 필수요건을 충족한다는 표시였으나, 소비자들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공중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 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획득에 평균 2~3 개월, 자동차는 7 개월 기간과 1 억 7 천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CE 마크제도가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현재 CE 마크는 일부 제품들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데, 건축자재, 압력용기, 통신 단말기, 위성수신기기, 의료장비 등 20 개 제품群이 그 대상이다.
- EU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규율적용대상 상품이 동 CE 마크 부착없이 유통 중일 경우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상품 유통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 또한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CE 마크의 사용과 부착에 있어서 지침과 규격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와 함께 적합성 인증서에 서명한 제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전자제품 지침(WEEE, Directive 2000/96/EC)

- EU 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 생산자 정의: ①자사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②OEM등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전기전자제품을 자사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③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입업자로 일반적인 생산자의 개념인 producer나 maker의 의미보다는 역내 최초 판매자의 개념이 강함
- 적용대상은 교류 1 천 V, 직류 1 천 5 백 V 이하의 전기제품(전류나 전기장을 이용해 작동하거나 전류나 전기장을 생성, 전송, 측정하는 장비)로 구체적인 품목은 대형 가정 기기, 소형 가정 기기, IT 및 통신 장비, 소비자 장비, 조명 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대규모 고정산업 도구 제외),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의료 장비 (모든 이식 제품은 제외), 검사 및 통제 기기, 자동판매기 등이다.
- 회원국 별로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는 ①분리회수 시스템운영 (EU 회원국), ②회수 처리비용책임(생산자), ③재활용마크 부착(생산자) ④재활용정보 제공(생산자)이 시행되어야 한다.
 - 비용분담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2005 년 8 월 13 일 이전 출시된 제품 관련 비용은 지불 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관련 제품 생산자들이 부담한다.
- 2006 년 12 월 31 일까지는 ①회원국별 거주자 1 인당 연간 4kg 이상 회수(EU 회원국) ②품목별로 의무 재활용 목표(생산자)가 달성되어야 한다.

□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 법률시행기간: 이탈리아 환경부
- 등록기관: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 재활용 처리기관
 - The European Recycling Platform (ERP: www.erp-recycling.org)
 - ecoR'it (www.ecorit.it).
- 근거법률
 - Legislative Decree No. 151 of 25/07/2005
 - (Italian Official Journal No 175 of 29/07/2005)
- WEEE 마크 제도는 강제 규정이나 회원국 정부의 특정 WEEE 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는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이다.

(1) WEEE 마크 부착

- 제조자는 EU 규정에 따라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자사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 해야 한다.
- 마크 부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바퀴 달린 쓰레기통 모양의 WEEE 마크 부착(crossed-out wheeled bin) ②생산자명 표시 ③ 검은색 막대를 WEEE 마크 아래에 추가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출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 등이 있다.



(2) 재활용 정보를 제조사 홈페이지, 안내문, 설명서 CD-Rom,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재활용 기관 혹은 정부 당국 등 생산자 등록 기관에 생산자로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이때 회사정보,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재활용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보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재무보증은 생산자가 시장철수, 부도 등에 의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적립, 재활용보험 가입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이탈리아 등록기관: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4) 판매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을 관리하여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기관을 통해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는 지방자치정부가 설립한 수거시스템을 이용하여 WEEE 를 정해진 수집지역, 제한 기간 내에 전달하여야 하며 회수하여야 하는 가전제품 WEEE 양이 많을 경우 수거시스템 동의 하에 기업이 이를 회수하여야 함.
- 본 규정에서 언급한 물질은 규정상의 특정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전처리 및 제시된 재활용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생산자는 회원국별 가입 재활용제도별로 적정 회수 처리 비용 부담

- 이탈리아의 경우 2005 년 8 월 13 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EEE 에 대해, 생산자들은 수거지와 처리시설로부터의 운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으며 EEE 가 시장에 출시 될 때, 생산자는 적당한 financial guarantee 를 지불해야 한다.

- 미 이행 시 제재사항
 - 무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EEE 에 대한 개런티를 제공하지 않은 유통업자: 제품당 150 유로~400 유로 벌금
 - WEEE 의 적절한 수거 시스템, 처리, 회수. 재정 절차를 만들지 않은 생산자: 30,000 유로~100,000 유로 벌금
 - financial guarantee 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제품당 200 유로~1,000 유로벌금
 - EEE 사용 설명서에 이탈리아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2,000 유로~5,000 유로 벌금
 - 신 EEE 출시 후 1 년 내에 매뉴얼 또는 전자 매체의 형식으로 회수처리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5,000 유로~30,000 유로 벌금
 - WEEE 에 마크 표기 없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제품당 200 유로~1,000 유로 벌금
 - 생산자 등록 이전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30,000 유로~100,000 유로 벌금
 - 이탈리아 규정에 따른 WEEE 관리 책임자의 이름 및 국가 등록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생산자: 2,000 유로~20,000 유로 벌금

다.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Marking)

- 이탈리아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적에 수반된 서류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품이나 컨테이너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라. 표시규정 (Labeling Requirement)

- 일반적으로 이탈리아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표시규정 요구 사항은 없으나, 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제조자 국적 및 이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시멘트, 피아노, 하모니카 등의 악기류, 의료기기용 온도계, 각 민족별 전통의약품, 화장품, 주류 등

7. 지적재산권

가. 지적 재산권 등록

- 특허(Patent) 등록의 경우 각 지방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제특허등록은 이탈리아 특허청(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 UIBM)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EU 개별국가를 통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보다 EU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EPO)를 통해 특허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편리 하다.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EU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는 경우 UIBM 에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EPO를 통해 특허 신청을 진행할 경우 신청서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1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은 헤이그, 베를린, 뮌헨 EPO 사무소나 이탈리아 특허청에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PO에 특허신청을 하고 자국 특허청에도 특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 상표(Trademark)의 경우도 특허와 유사하게 각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경우 이탈리아에 거주주소(Address)가 있어야 한다. 상표 역시 EU

상표 및 디자인 사무소(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marks and Designs)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국제상표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국내 등록 절차도 진행하여야 한다.

- 저작권의 경우 출판된(published) 작품의 경우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내 Copyright service에 등록을 해야하고 출판되지 않은(unpublished)작품의 경우 작가 및 출판인 협회(Societa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SIAE)에 등록해야한다. SIAE는 소프트웨어의 등록도 관할하고 있다.

□ 특허권; Patents

- 발명이나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위한 협약에 따라서 보호된다. 산업 발명은 20년 간 보장된다. 의약품은 1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디자인 15년, 식물류 15년 (포도 및 나무는 30년), 반도체회로도 10년 등이다.
-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의 경우 신청비는 40유로이며 4년째부터 최초 47유로에서 15년째 741유로까지 매년 특허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741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실용신안(Utility Model)의 경우 신청비용이 40유로이며 처음 5년간은 335유로, 다음 5년간은 674유로를 유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디자인 이나 모델의 경우 신청비용이 40유로, 신청年으로부터 5년 이후 5년간은 404유로, 3번째, 4번째, 5번째 5년간은 674유로를 유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 참고로 현재 이탈리아는 특허 관련 비용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향후 비용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 상표권; Trademarks

-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경과 12개월 전부터 기간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며, 재연장 신청 기간이 경과 시에는 비용이 더 소요된다.
- Company Marks는 최초 10년 등록에는 101유로가 소요되며, 재연장에는 34 유로가 소요 된다. Collective Marks는 최초 등록에 337 유로, 재연장시 202 유로가 소요됨. 상표등록 관련 정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웹사이트 www.wipo.org/madrid 에 있다.

□ 저작권 Copyrights

-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살아 있는 기간 및 사후70년간 보장되며 1992년부터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된다(관련법령: Legislative Decree 518, Prime Ministerial Decree 244/94)
- 저작권은 그래픽, 음악, 문학작품, 드라마, 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적용된다. 출판되지 않은 작품과 소프트웨어의 경우 SIAE에서 등록을 관할하는데 출판되지 않은 작품 등록비용은 SIAE 회원은 55유로, 비회원은 110유로이며 소프트 웨어 등록의 경우에는 107유로가 소요된다. 출판된 작품 등록은 문화부 산하 Copy right service에서 관할하며 등록비용은 14.62 유로이다.

나.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 이탈리아에서 해적판이나 불법복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압수는 물론 최대 10,000유로 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경우 1,032~ 20,000유로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특정 수입품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소유권자가 로마에 소재하고 있는 이탈리아 중앙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지방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나 그 대리인과 함께 수입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피해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침해자의 은행내역, 거래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피해액 만큼 지적재산권 침해자의 재산의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 한편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보호 관련 의무 사항을 이행했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는 운영자 정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을 어길 경우 전자는 103~10,000유로 사이의 벌금, 후자는 30,000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또한 2003년 7월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이탈리아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법정(Intellectual Property Court Division)에서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만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가진 자(Licensee)는 할 수 없다.

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

- 2000년에 이탈리아는 1996년에 의회에 제출된 반 해적법을 통과시켰으며 그 결과 USTR은 이탈리아를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하였다.
- 2003년6월에는 미국 특허청과 지적재산에 관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그 선언에 따라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마드리드의정서에 부합하는 상표 관련 전자등록 체계를 개발하도록 하고 새로운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활용과 지적 재산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 이탈리아 정부는 모조상품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모조상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모조상품을 구입한 일반소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도 Italy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상표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생산지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이탈리아 상품보호 방향으로 판결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방법원에서 상기 상표표시는 생산지 표시가 아니므로 상품차압을 철회토록 판결한 바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 물품의 반입: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 수입신고: 관세청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해당물품의 송품장·과세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세관에 신고
- 서류심사: 세관은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구비서류의 이상유무, 기재사항의 오류 유무를 확인
- 검사·감정: 서류와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적용상의 실물을 대조, 확인
- 관세부과·징수: 관세를 확정하여 징수
- 물품반출: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나. 통관서류

1) 선하증권(Bills of Lading)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2) 송장(Invoice)

- 명세서·계산서·대금청구서를 겸한 선적서류로,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과 영사송장(領事送狀: consular invoice) 및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을 가리켜 단순히 송장 이라 한다.
- 상업송장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이므로 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출항일, 하인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다.
 - 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이 되고 피발행인은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 의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송장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수 없고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상품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 영사송장
 - 선적서류의 하나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의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송장으로 송장을 크게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과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의 두 종류로 나눌 때 세관송장 (customs invoice)과 함께 공용송장에 해당된다.
 - 수입할 때 관세 등을 포탈하거나 경감 받기 위해, 또는 외화를 도피하거나 덤핑을 위하여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하고 내용은 일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상업송장과 비슷하나 신용장에 'visaed'라고 해서 영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만일 'legaliz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송장은 물론 선하증권에도 영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문구가 'notarized'라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송장에 영사의 서명은 물론 상공회의소의 인증도 있어야 함.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이다.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패킹리스트라고도 함. 선하증권이나 상업 송장과 같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나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실무적으로 사용됨.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포장 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4) 수입허가(Import Permit)

우유 및 유제품, 치즈, 생선, 밀, 채소, 철강, 가금류, 폐기물, 방사성 물질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요구한다.

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45 유로 이상의 섬유(Textile)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나 샘플이나 개인 소유품일 경우는 면제됨. 이탈리아에서는 원산지표기를 수출상품의 부대서류에 표기토록 하고, 포장 외부에는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다. 물품 검사

물품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라. 공항

연간 9 천 1 백만 명의 승객과 7 십 5 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제 공항으로는 로마의 Fiumicino 공항과 밀라노의 Malpensa 공항이 있으며 각각 연간 2 천 5 백만, 2 천만의 승객이 이용한다. 밀라노와 로마의 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에 20 여 개의 국제 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럽 전역으로의 편리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 주요 공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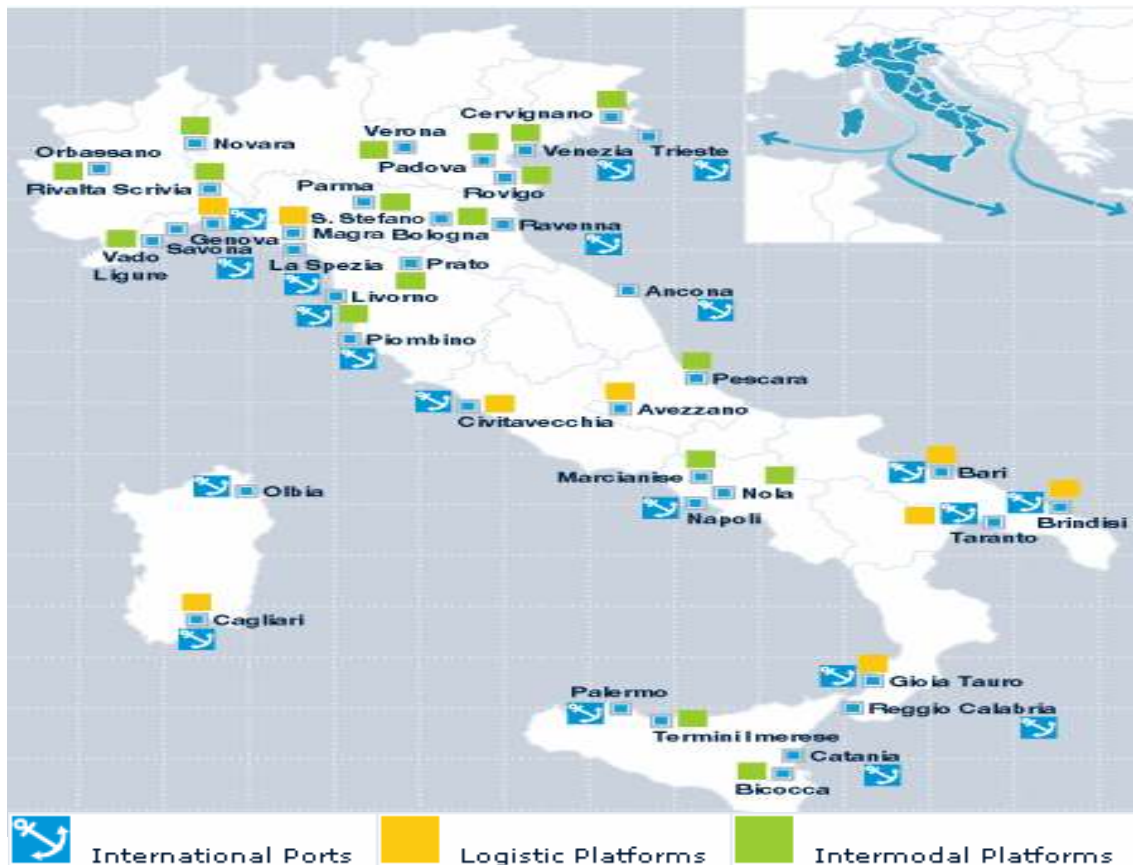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주요 공항 현황

지역	공항명	터미널수	위치	연락처	접근 교통편
로마	Fiumicino	3	로마 남서쪽 26km에 위치	- 전화 (0)6 65951 - Fax: (0)6 6595 5707	Leonardo Express가 로마 중앙역에서 공항까지 운행 (35분 소요)
밀라노	Malpensa	2	밀라노 북서쪽 45km에 위치	- 전화:(0)2 7485 2200 - Fax: (0)2 7485 4010	Malpensa Express 가 공항 에서 밀라노 시내 카도르나역 까지 행(45분 소요)
밀라노	Linate	1	밀라노 동쪽 7km에 위치	- 전화:(0)2 7485 2200 - Fax: (0)2 7485 2010	73번 시내버스가 밀라노 시내 산바빌라역까지 운행
나폴리	나폴리	2	나폴리 북동쪽 7km에 위치	- 전화:(0)81 789 6111 - Fax: (0)81 789 6557	택시나 시내버스 이용
베니스	Marco Polo	2	베니스로부터 12km 에 위치	- 전화:(0)4 1260 6111 - Fax: (0)4 1260 6260	택시나 수상교통 이용
볼로냐	G Marconi	2	볼로냐 북동쪽 6km에 위치	- 전화:(0)51 647 9615 - Fax: (0)51 647 9723	Aerobus bus가 볼로냐 중앙역에서 운행(20분 소요)

마. 항구

- 이탈리아에는 7,400km의 해안선을 따라 약 150개의 항구가 있으며 연간 1천 5백만 명의 승객과 4억 6천 3백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항구로는 제노아 항구, 네이플 항구, 베니스항 등이 있다.

이탈리아 내 주요 항구 분포도



제노아 항구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01년~06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여객	2,410,102	2,639,850	2,734,281	2,727,502	2,642,182	2,638,314
크루즈 여객	471,245	567,506	615,800	287,863	395,797	475,134
여객 총계	2,881,347	3,207,356	3,350,081	3,015,365	3,037,979	3,113,448
일반화물(톤)	51,178,497	52,848,295	53,713,479	57,032,730	56,455,527	56,323,263
컨테이너(TEU)	1,526,526	1,531,254	1,605,946	1,628,594	1,624,964	1,657,113

자료원: Genoa Port Authority

나폴리 항구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01년~06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크루즈(1)	469,632	485,067	613,610	773,223	830,158	971,874
페리(2)	6,836,707	6,238,609	6,773,000	7,209,500	6,384,142	7,000,000
총 여객수(=1+2)	7,306,339	6,723,676	7,386,610	7,982,723	7,214,300	7,971,874
컨테이너(TEU)	430,000	444,000	433,000	347,537	373,706	444,982
화물(톤)	16,914,000	n.a.	19,634,000	19,667,400	20,800,000	22,100,000

자료원: Naples Port Authority

바리 항구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01년~06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크루즈(1)	145,781	203,431	213,984	262,888	277,979	303,338
페리(2)	1,040,379	1,058,662	1,094,835	1,076,758	1,176,969	1,272,023
총 여객수(=1+2)	1,186,160	1,262,093	1,308,819	1,339,646	1,454,948	1,575,361
자동차	164,381	173,042	178,985	182,837	210,127	223,247
트럭 & 버스	106,429	119,014	121,829	125,272	151,766	190,459
컨테이너(TEU)	1,579	11,997	24,341	20,192	10,008	49
화물(톤)	3,503,911	3,608,480	3,927,662	3,816,126	4,416,145	5,215,711

자료원 : Bari Port Authority

다. 운송회사 List**1) DHL Express S.r.l.**

- 주소: Viale Milanofiori, Palazzo U3 Strada 5, Rozzano (MI), Italy
- 전화: 02-824 70288
- 홈페이지: <http://www.dhl.com/it>

2) FEDEX

- 주소: Via Albricci, 10 20122 Milano (MI)
- 전화: 800.123.800
- Fax: +39-02-2188.7700
- 홈페이지: <http://www.fedex.com/it/>

3) Vector S.p.A.

- 주소: Via Redipuglia7, 21053 Castellanza(VA)
- 전화: +39-0331-446046
- Fax: +39-0331-446060
- 홈페이지: <http://www.vectorspa.it>

4) GAVA Group

- 주소: Via Lodi, 23-Los.S. Pedrino 20060 Vignate(MI)
- 전화: +39-02-950-0981
- Fax: +39-02-950- 98317
- 홈페이지: <http://www.gavagroup.com/>

5) COTALIA S.R.L

- 주소: Via Palestro 12 201013 Gallarate(VA)
- 전화: +39-0331-248372
- Fax: +39-0331-248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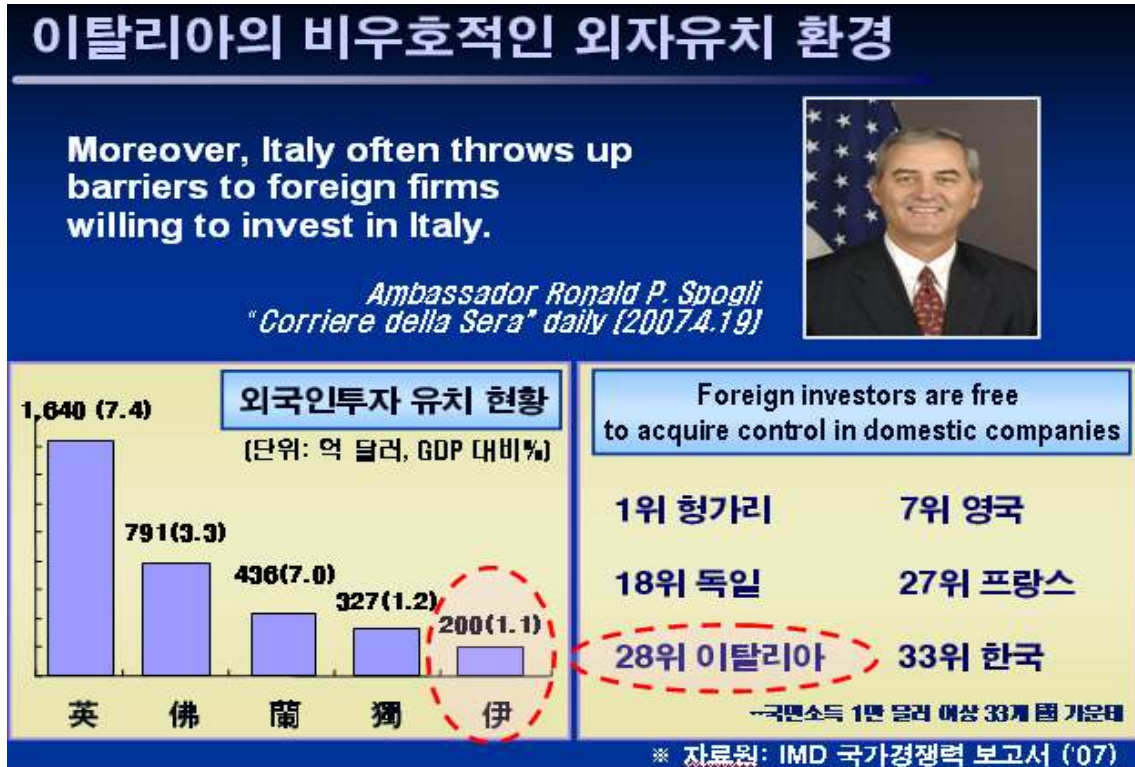
라. 컨테이너 비용 및 운송 소요 기간

- 이탈리아 Genova 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할 경우 20 feet 컨테이너는 200\$, 40 feet 컨테이너는 300 \$이며 부산항에서 이탈리아 Genova 항으로 운송 할 경우 20 feet 컨테이너는 1,300 \$, 40 feet 컨테이너는 2,600 \$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 이 같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중국 등 아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물량에 비해 많고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오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탈리아로 들어갈 때 보다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나올 때는 화물선에 여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운송 소요 시일은 약 23 일 정도로 3 주~4 주 정도 예상하면 된다.

IV. 투자**1. 투자환경****□ 일반 현황**

- 이탈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투자환경 최대약점으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관료주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운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관계 형성 곤란, 일부 지역에서의 여전히 높은 범죄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에 포함되었다.

- 이탈리아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4월 駐伊 미국대사가 현지 일간지에 공개적으로 이탈리아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투자유치 통계를 유럽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가 외자유치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중소기업 비중이 95%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단독 투자보다는 M&A, 조인트벤처 형태의 투자를 선호한다.

- 아래 표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해외 및 외국인 투자가 여타 주요 EU국가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주요국 GDP 대비 외국인 투자 stock 및 해외투자 stock 비중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FDI/GDP	ODI/GDP	FDI/GDP	ODI/GDP	FDI/GDP	ODI/GDP	FDI/GDP	ODI/GDP
EU	32.8	43.0	31.7	40.9	33.5	40.7	38.0	47.3
영국	33.9	68.7	36.3	64.8	37.1	56.2	47.8	62.6
프랑스	29.1	41.1	26.5	38.1	28.5	40.5	35.0	48.3
독일	16.1	35.0	12.9	30.8	18.0	34.6	17.4	34.7
스페인	35.3	31.5	34.9	33.5	32.6	33.8	36.2	41.5
이탈리아	12.3	16.3	13.1	16.7	12.4	16.6	15.9	20.3

주: FDI/GDP=외국인투자 stock/GDP, ODI/GDP=해외투자 stock/GDP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또한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이탈리아 M&A 현황을 통해 M&A 역시 유럽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이탈리아 M&A 현황

□ 이탈리아 M & A 현황

- UNCTAD에서 발간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6년판에 따르면, 2005년도 10억 달러 이상의 Cross-border M&A(국가간 M&A) 총 141건 가운데에 이탈리아 기업이 관련된 건수는 12건이다.
- 이에 반해 영국 42건, 독일 16건, 네덜란드 13건으로 이탈리아는 유럽 인근 국가들에 비해 M &A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럽 주요국 10억 달러 이상 국가간 M & A 건수(2005년)

(단위: 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수된 건수(Acquired Case)	21	9	8	7
인수한 건수(Acquiring Case)	21	7	5	5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 이탈리아 기업이 인수된 7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유틸리티) 3건, 금융 2건, 통신 1건, 금속 1건이며 이탈리아 기업이 외국기업을 인수한 건을 살펴보면 금융 2건, 잡화 1건으로 대부분의 M &A가 금융 및 유틸리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유럽 주요국가들의 M &A 시행 건수를 살펴봐도 이탈리아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M &A 건수는 경제규모가 이탈리아의 1/3 수준인 네덜란드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주요국 M & A 건수

(단위 : 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S	P	S	P	S	P	S	P	S	P
2003년	459	525	296	255	213	200	112	143	111	93
2004년	470	602	360	259	267	220	113	129	105	62
2005년	587	720	429	305	312	324	154	204	178	108
2006년	625	817	512	328	333	370	128	216	150	115

주: S : Sales(인수됨), P: Purchase(인수함)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우리나라 M & A 현황

- 일반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중국, 홍콩 등을 제외하면 유럽국가들에 비해 M &A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M &A를 통한 해외 기업인수 건수는 일본을 제외하면 자국 기업이 인수되는 건수에 비해 작은 편이다.
- 참고로 한국의 M &A 건수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탈리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 주요국 M & A 건수

(단위: 건)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중국	
	S	P	S	P	S	P	S	P	S	P
2003년	37	28	26	15	83	111	108	114	214	73
2004년	55	18	23	15	82	111	143	128	217	59
2005년	36	26	26	17	86	158	182	172	255	58
2006년	38	15	31	15	65	120	162	149	247	61

주: S : Sales(인수됨), P: Purchase(인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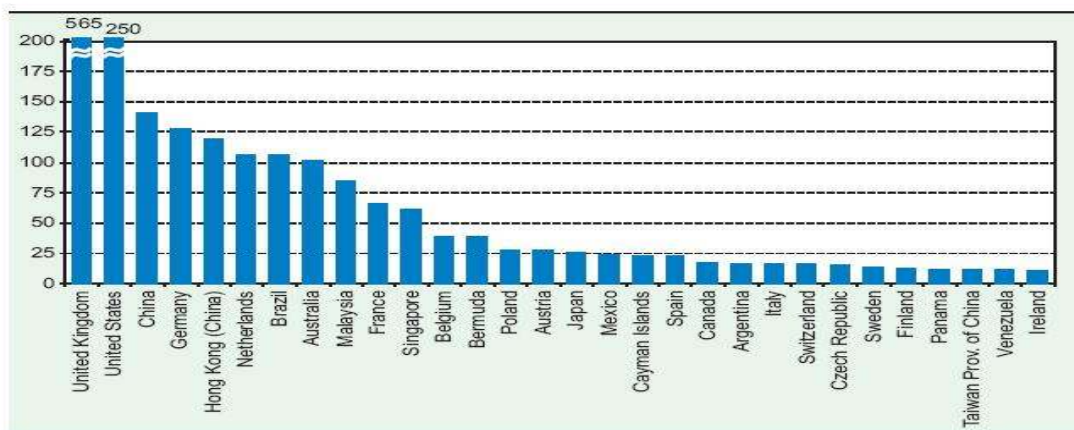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모두 아직까지는 M & A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으로 양국간 M & A를 통한 사업개발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향후 M & A에서는 투자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이 양국 모두 아직 전문적인 금융산업 경쟁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 2007년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d○support business activities efficiently’ 항목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3개국 중 이탈리아는 25위, 한국이 33위를 차지하였다.
- 또한 한국, 이탈리아 모두 외국인투자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 2007년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Foreign investors are free t○acquire control in domestic-companies’ 항목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3개국 중 이탈리아는 28위, 한국이 33위를 차지하였다.
 - World Investment Report 2007이 발표한 ‘2005년 기준 개도국 소재 100대 다국적 기업들이 자회사를 많이 설치한 30대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기업의 자회사가 영국과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홍콩·싱가포르가, 유럽에서는 독일·네덜란드·프랑스가 선호되고 있음. 이탈리아는 22위 에 그쳐 경제규모가 작은 스위스·스웨덴·핀란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기준 개도국 소재 100대 다국적기업들의 국가별 자회사 설치현황

(단위: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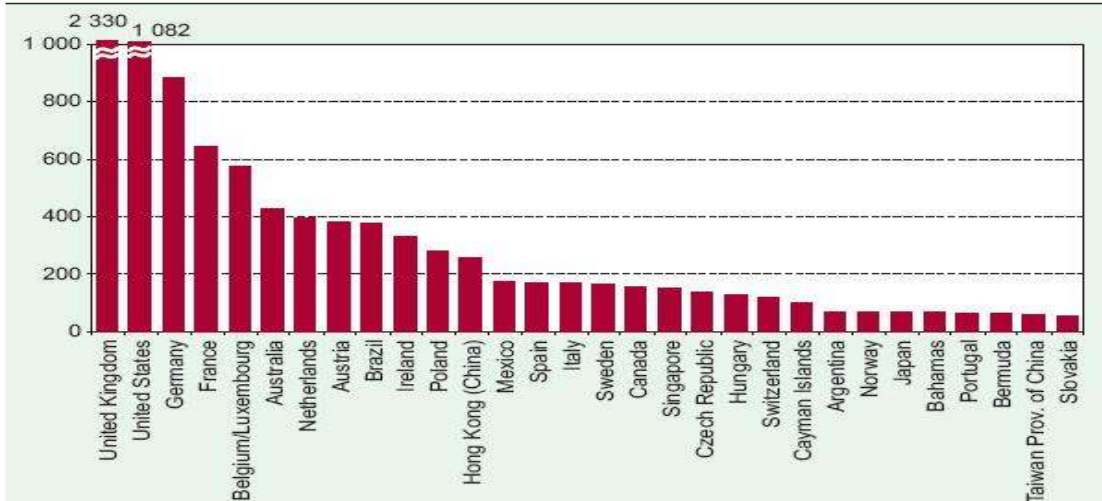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2005년 기준 세계 50대 금융기업들이 자회사를 많이 설치한 30대 국가 현황'에서도 영국과 미국이 절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가 각각 3·4·5·7·8위를 기록해 유럽지역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15위를 기록했다.

2005년 기준 세계 50대 금융기업들의 국가별 자회사 설치현황

(단위: 개수)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이탈리아의 경우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법제도 관련 영문자료가 부족해 M & A 관련 사업 추진 시 정보획득과 법률 자문 등에 전문기관 활용이 필수적인 바 이에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 통계

2006년 기준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391.6억 불이며 해외직접투자는 420.4억 불로 해외직접투자가 더 많았으며 2001년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접투자 유입/유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외국인 직접투자(FDI)	14,871	14,545	16,415	16,815	19,971	39,159
해외직접투자(ODI)	21,472	17,123	9,071	19,262	39,671	42,035

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임.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또한 직접투자 Stock의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GDP 대비 20.3%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는 15.9%를 차지하여 1995년의 5.8%, 8.8%에 비해 해외투자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간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접투자 Stock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외국인직접투자(FDI)	10.6	11.3	13.2	12.4	20.3
해외직접투자(ODI)	16.3	16.8	16.7	16.6	15.9

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임.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한편 이탈리아의 직접투자 Stock의 GDP 비중은 영국, 프랑스 등 EU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낮고 EU 전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U 주요 국가직접투자 Stock의 GDP 대비 비중 비교

(단위: %)

		1990	2000	2005	2006
이탈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5.3	11.0	12.4	15.9
	해외직접투자(ODI)	5.3	16.4	16.6	20.3
영국	외국인직접투자(FDI)	20.6	30.4	28.5	47.8
	해외직접투자(ODI)	23.2	62.2	40.5	62.6
프랑스	외국인직접투자(FDI)	7.0	19.6	28.5	35.0
	해외직접투자(ODI)	8.9	33.5	40.5	48.3
독일	외국인직접투자(FDI)	6.5	14.3	18.0	17.4
	해외직접투자(ODI)	8.9	28.5	34.6	34.7
EU	외국인직접투자(FDI)	10.6	26.0	33.5	38.0
	해외직접투자(ODI)	11.8	36.4	40.7	47.3

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임.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Cross-border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Sales	10,953	105	41,076	178	35,471	150
Purchase	5,167	62	34,361	108	12,429	115

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임.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연도별 직접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외투자(ODI)	114	130	140	138
외국인투자(FDI)	275	350	306	253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세부업종 별로는 은행업, 통신, 기계 부분에 주로 유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에너지, 섬유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산업별 FDI 純 유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업	171.6	-95.6	108.5	234.8	511.8
에너지	922.3	435.2	1,993.8	4,463.3	10,057.1
광공업	4,758.1	4,942.9	5,933.1	2,016.2	6,996.3
- 기계	1,125.8	1,942.1	2,023.9	3,690.7	1,314.3
- 화학	358.9	623.4	1,066.8	-3,535.4	441.0
- 식품	991.2	504.2	2,483.5	362.7	2,388.0
- 섬유	240.1	394.5	353.4	513.0	544.1
- 금속	334.4	311.2	468.5	687.0	1,315.5
- 기타	1,707.7	1,167.5	-463.0	298.2	992.6
건설 및 공공 건축	146.6	168.4	363.0	125.7	205.0
서비스	8,185.9	8,812.9	6,634.2	9,576.4	925.5
- 은행, 보험	1,761.8	4,011.0	2,972.2	5,749.1	1,207.5
- 무역, 교통	845.5	525.0	410.4	36.0	653.4
- 통신	1,119.3	544.0	-412.6	516.8	-11,468.3
기타 서비스	4,459.3	3,732.9	3,664.2	3,274.5	3,274.5
총계	14,184.6	14,263.8	15,031.9	16,416.2	18,695.7

주: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임/ '순유입=신규투자(New Investment)-투자철회수(Disinvestment)'
 이므로 음수값도 가능, 통계 작성 기관별 차이로 WIR과 STAT-USA사이의 차이 발생 가능
 자료원: STAT-USA 2007년도 자료

□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이탈리아의 해외직접투자는 광공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비슷하
 규모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탈리아 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 화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은행, 보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FDI 純 유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업	8.8	8.5	38.0	21.1	70.8
에너지	8,313.1	2,376.4	3,450.7	5,336.7	2,675.8
광공업	4,834.9	3,321.4	1,332.9	7,573.9	7,629.8
- 기계	1,393.2	1,428.5	-1,393.3	4,234.8	3,684.5
- 화학	651.7	321.6	721.2	1,730.4	1,730.4
- 식품	557.4	99.3	295.2	151.6	206.2
- 섬유	151.7	469.2	336.3	287.0	411.2
- 금속	774.3	158.0	274.0	246.0	600.0
- 기타	1,306.7	844.8	1,099.2	924.1	997.5
건설 및 공공 건축	105.5	-35.0	223.6	85.7	159.0
서비스	7,891.3	9,848.8	1,935.7	5,037.3	7,444.7
- 은행, 보험	708.6	4,140.6	5,492.6	2,636.0	5,164.6
- 무역	428.3	852.3	485.3	1,060.9	923.0
- 교통 통신	2,661.9	338.7	-8,217.6	-923	110.6
- 기타	4,092.5	4,517.2	4,175.4	2,263.4	1,264.6
총계	21,153.6	15,520.1	6,980.9	18,054.7	17,980.1

주: 2005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자료원: STAT-USA 2007년 자료

통계 작성 기관별 차이로 WIR과 STAT-USA사이의 차이가 발생 가능

다. 국별 투자 동향

□ 국별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국가별 이탈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미국 및 인근 EU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가 많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주로 투자하고 있다.

국가별 FDI stock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13,781.5	15,373.7	19,458.1	22,448.3	21,451.0
EU	67,574.5	80,358.0	113,750.9	140,705.8	145,179.5
프랑스	14,273.7	17,071.0	21,294.1	24,618.1	25,637.5
네덜란드	14,033.8	17,444.7	26,882.4	39,024.4	40,079.1
영국	12,791.7	14,692.1	22,266.6	26,624.2	25,434.5
독일	8,868.0	9,959.3	13,797.2	14,317.9	15,309.3
룩셈부르크	10,703.7	13,171.2	18,354.2	22,345.1	24,042.5
스웨덴	2,208.8	936.3	1,279.1	1,941.8	3,034.2
벨기에		2,307.9	2,963.7	3,335.1	1,982.3
스페인	853.9	936.3	1,279.1	1,941.8	4,820.5
기타 EU	3,840.8	4,652.3	6,909.9	8,086.2	4,839.4
스위스	13,899.7	15,375.8	18,481.9	21,881.1	20,115.7
리히텐슈타인	1,334.7	1,438.4	1,824.8	2,106.7	1,975.2
일본	1,984.8	2,315.2	2,991.2	3,596.6	3,419.1
아르헨티나	119.1	129.4	185.3	257.7	246.8
브라질	54.7	58.5	78.8	128.7	184.2
기타	5,740.8	6,182.7	7,330.4	9,736.8	8,747.3
총계	104,489.8	121,231.7	164,816.0	200,456.7	201,318.8

주 1 : EU : 2003년까지는 15개국, 2004년 부터는 25개국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5월1일 이후 가입)

주 2 :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자료원 : STAT-USA 2007년도 자료

□ 국별 해외투자 동향

이탈리아의 해외투자 역시 구주지역에 70% 이상 편중되어 있고, 주요 투자대상국은 프랑스, 미국, 스페인, 독일, 중국, 영국, 브라질 등이다.

1990년대 들어 동구권 국가들의 개방화에 따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증하였음.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에 해외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stock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18,799.9	17,390.4	18,420.5	18,851.2	19,617.5
EU	106,956.2	118,190.0	150,010.0	182,521.4	178,145.2
- 네덜란드	29,154.3	32,087.7	48,455.6	63,268.1	65,081.5
- 룩셈부르크	20,457.4	24,228.6	21,755.9	26,363.3	25,154.7
- 프랑스	15,487.5	16,131.5	20,921.2	24,344.5	23,866.6
- 영국	17,437.9	18,715.0	20,270.3	24,158.2	22,617.5
- 독일	9,505.8	9,272.4	13,065.1	15,758.7	15,004.7
- 스페인	6,204.9	7,125.3	9,871.1	10,882.0	9,866.6
- 벨기에		3,369.5	4,569.5	5,380.3	4,944.5
- 스웨덴	602.5	600.2	748.4	866.3	892.6
기타 EU 국가	8,78.4	6,659.7	10,352.9	11,572.4	10,716.6
스위스	8,975.6	9,321.5	10,954.9	10,559.0	10,007.1
브라질	4,056.9	2,486.4	3,473.1	3,954.4	4,935.1
아르헨티나	2,133.0	1,633.6	2,127.7	2,178.3	2,211.3
일본	965.0	954.1	1,137.7	1,249.9	1,164.1
리히텐슈타인	141.1	144.1	169.0	194.4	175.9
기타	17,76.17	19,552.1	23,107.6	24,901.6	26,460.5
총계	159,789.5	169,672.0	208,635.8	244,410.2	243,982.3

주1 : EU : 2003년까지는 15개국, 2004년 부터는 25개국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5월1일 이후 가입)

주 2 :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임.

자료원 : STAT-USA 2006년도 자료

라.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이탈리아에는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진출하여 있으며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래와 같다.

- 미국 : IBM Italia , Ford Italia, General Motors, Hewlett-Packard, Procter & Gamble, Whirlpool Esso Italiana (ExxonMobil 이탈리아 자회사)
- 독일 : Opel, Mercedes-Benz
- 네덜란드 : Royal Philips Electronics
- 네덜란드 Royal Dutch/Shell
- 프랑스 : Renault and Michelin
- 쿠웨이트 : Kuwait Petroleum
- 스웨덴 : Electrolux Zanussi and LM Ericsson
- 스위스 : Nestlé ;
- 일본 : Suzuki 등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對 이탈리아 투자

- 한국의 대 이탈리아 투자(신고기준)는 2007년 3분기 기준 총 99건, 3억4,631만 달러 규모로 수출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구조와 이탈리아 내에 영업환경이 언어 등의 문제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 2007년 3분기 동안의 대 이탈리아 투자 신고실적은 8건 195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對 이탈리아 연도별 투자 동향(2001년~2007년 3분기)

(단위: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1년	2	2	30	1	5
2002년	5	2	186,226	5	186,226
2003년	4	3	817	6	868
2004년	5	3	13,319	4	13,268
2005년	11	6	6,066	12	4,205
2006년	11	6	7,765	20	9,230
2007년 3분기	8	3	1,951	10	2,103
총계	99	52	346,311	114	325,599

자료원: 수출입 은행

- 주요 투자 진출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이며, 진출 형태는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아래 통계에서 보듯 이 전체 투자신고금액의 81% 이상을 도소매업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이탈리아 업종별 투자 동향(1968년~2007년 3분기)

(단위: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36	15	63,180	41	52,534
도.소매업	53	28	281,324	56	271,889
숙박음식점업	1	1	920	3	268
운수업	5	5	585	7	585
부동산임대업	3	2	314	6	314
사업서비스업	1	1	8	1	8
총계	99	52	346,311	114	325,599

자료원: 수출입 은행

나. 이탈리아의 對 한국 투자

- 이탈리아의 대한투자(신고기준) 경우 2006년 말 기준 총 116건, 1억 3천 8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이탈리아 기업 활동이 대부분 유럽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대한투자도 7건 7,759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 업종별로 기계, 화학, 섬유 및 의류, 운송업 등에 주로 제조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Carrier S.p.A(냉·난방공조기기 및 동 부품 제조), Saes Getters S.p.A(전기 및 전자), Stelvio Chiapponi S.p.A(제조업), Stefanel S.p.A(섬유 및 의류),

Merloni Termosanitari S.p.A(금속), ACS Dobfar S.p.A(의약), Ergom Materie Plastiche S.p.A(화학공학), ING. Loro Piana & C.S.P.A.(무역업), SU Samputensili S.p.A(금속), Manuli Rubber Industries S.p.A(화학공학)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對 한국 연도별 투자 현황(1962년~2007년 3분기)

(단위: 건, 천 달러)

년 도	이탈리아의 대한투자	
	건수	금액
2002 년	7	936
2003 년	11	9,004
2004 년	6	396
2005 년	9	13,421
2006 년	7	7,759
2007년 3분기	12	11,732
총 계	130	152,168

자료원 :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의 對 이탈리아 업종별 투자 동향(1968년~2007년 3분기)

(단위: 천 달러, 건)

	신고	
	건	금액
제조업	77	132,021
서비스업	52	19,927
전기가스수도건설	1	220
총계	126	152,168

자료원 : 산업자원부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 2002년1월 이탈리아 리라화의 유로화 태환 이후 이탈리아 경제제도는 상당부분 EU 규범에 맞춰 개정되었고, 정부와 기업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도 과거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동차, BT, 화학, 식음료, 정보통신, 물류허브, 의약, 관광산업을 외국인투자유치 중점분야로 지정, 집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비EU 회원국의 이탈리아 국내선 운항사업, 선박산업, 방위산업체의 민영화 투자, 기타 전략산업인 에너지, 광업, 통신산업, 의약산업, 관광, 보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투자제약이 있다.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투자 가능하며 인센티브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나.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기관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이므로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EU 지침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며 특별한 평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사후 타당성 평가나 지원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수혜 시 관련 절차를 잘 검토해야 한다.

- 인센티브 관련 이탈리아 국내법령으로는
 - 공장의 신규 설립 및 확장에 관한 법(Law 488/92),
 - 재개발 및 생산지역 활성화에 관한 법(Law 181/89),
 - 지방개발(Location Agreement),
 - 여성기업인 관련 법(Law 215/92),
 - 연구 및 개발 관련 법(Law 140/97)
 - 농업산업 법(Law 266/97) 등이 있음
- 인센티브 관련 자금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중앙신용평가 기관(Medicocredito Centrale, MCC),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 교육대학 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rch) 등에서 주관하고 있음
-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 받는 인센티브가 달라지며 EU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자는 EU 집행위원회에 총 수혜금액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발표된 EU의 기업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합해 SME로 통칭 하며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적용된다.
 - 영세기업(ME: micro-enterprise): 최대 종업원수 1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2백만 유로 미만
 - 소기업(SE: small business): 최대 종업원수 5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1천만 유로 미만
 - 중기업(LE: medium-sized business): 최대 종업원수 25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43백만 유로 미만
- 그러나 기업규모에 상기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사 주식의 25%를 소유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신법에 의해 벤처캐피탈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지분이 높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많은 투자인센티브가 영세기업 (micro-enterprise)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탈리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4년까지 인센티브 중 53%가 소기업에, 11%가 중기업에, 3%가 대기업에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R&D 관련 인센티브

- FAR(Fondo per le Agevolazioni alla Ricer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시행령 297/99에 근거하여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원된다.
 -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기관 설립 프로젝트 등에 배정된다.
- FIT(Fondo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법 46/1982에 근거하여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첨단기술분류, 경쟁 전단계 개발, 산업연구,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된다.
 - 남부지역에서는 통합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될 수 있다.
- Law 140/97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연구 및 경쟁 전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신청한다.

라.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정부가 주관한다.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정부가 주관한다.

마.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

- Law 341/95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설비나 기계류 구입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이다.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며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Law 181/98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Law 311/204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역시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 정도는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다른 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EU규정상의 지원 한도 확인을 위해 EU 집행위 승인이 필요하다.
- Law 338/2000에 근거한 인센티브
 - Law 338/2000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의 ‘신경제’ 촉진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보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탈, 보안, 전자지불시스템, 직원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60%를 세금 환급해준다.
- Law 488/92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중북부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조업, 광업, 상업, 건축업,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업, 공예업 등을 위한 타자기 지원대상이다. 동 인센티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이탈리아 주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고서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에 근거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 Local Agreement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새로 도입된 인센티브이다. 중-대 외국인 기업과 2005년 3월 31일까지 해외에 있다가 이탈리아로 이전한 이탈리아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원방식은 보조금 지급 또는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의 부분적 임시 출자 방식이 있으며 지원 절차는 동 기관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로 대폭 간소화되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기업 형태(진출 형태)별 특징

- 외국인 기업은 Srl, SpA, SApA 등의 세가지 기업 형태 중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역시 가능하나, 상업 활동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투자 실행 전 초기 단계에서 가급적 법률과 세제 관련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및 회사 설립이 지연될 수 있고, 납세 설계가 잘못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수혜 기회 상실 또는 벌과금 부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일단 법률 및 조세 관련 오류 발생시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탈리아 기업법은 1942년 최초 제정 후 2003년 1월 17일 법령 제 6호(Decree No. 6)로 상당 부분 개정 되어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 법에서는 기업형태를 크게 Srl, SpA, SApA 등 3가지로 기업 유형을 정하고 있다.
- Srl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납입 자본금이 낮고 이탈리아 회사법상 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가장 일반적 인 기업 형태
 - 2-3명 혹은 1인 기업도 가능
 - 상업등록소(상공회의소) 및 국세청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 개시할 수 없음. 등록 완료 전 영업 개시의 경우 설립 대행인이 무한 책임을 짐.
 - 납입 자본금은 10,000 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는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은행 보증서로도 대체 가능
 - 납입 자본금은 현금은 물론, 재화와 용역,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로 가능. 이때 가치 감정은 감정을 요구한 파트너 측이 지정한 공인 감정 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시행
 - 납입 자본금 120,000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총자산 액 3,125,000유로 초과 또는 매출액 6,250,000유로 초과, 상시 고용 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감사를 두어야 함.
- SpA (합자회사, joint stock companies)
 - 대기업에 일반적인 기업 형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은 동 형태가 의무적
 - 금융 시장 또는 은행을 통해 기채를 하며, 직접 주식시장에 상장 가능
 - Srl의 2, 3, 번 항 설명 동일 적용
 - 최소 납입 자본금은 120,000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은 은행에 예치해야 함. 단, 1인 SpA는 자본금의 전액 현금 예치
 - 납입 자본금의 형태 및 은행 계정 평가 등은 관련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시행
 -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주주총회 개최, 감사, 임원 선임 등은 정관 및 관련법에 따름.
- SApA (유한 합자회사,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 SpA와 거의 유사. 특별한 차이 없음.
 - 흔한 유형은 아님.

- 연락사무소(자본금 요건 없음)
 - 이 형태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 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 (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음.
 - 연락 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됨. 지사의 역할이 (1) 모기업 상품 및 자산의 예치, 전시, 전달, (2) 모기업을 위한 상품과 자산의 취득, 정보 수집, (3) 모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시 지사는 독립 법인 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나. 회사 등록 절차와 서류

- 자본금 납입: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예금구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 공증 기관 입회 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io)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법무사,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인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정관: 대표자성명, 주주현황, 회사명, 존립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은행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해외사무소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지사의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함.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
-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및 회계업무에 필수적이다.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번호 발급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재원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한다.

-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하고 보통 지사 설립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됨. INPS는 CSC, CA 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 액을 결정 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 준다.
 - INAIL (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 는 기업이 실제 영업 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 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수, 급여액, 작업장에서 사용 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 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상에도 명기해야 한다.

다. 합작투자

- 합작투자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형태로서 특정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단위 합작투자’, 개별 기업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간 합작 투자’의 형태로 나뉘어지며, 현재는 이탈리아에서도 증가추세에 있음.
-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의 경우 1번 단독투자 부분에서 설명한 3개 회사형태 중 1개를 선택해서 회사설립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 법인의 주식취득/지분참여의 경우에는 지분관계 변화를 해당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됨. 세부 서류는 합작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됨.
- 합작투자에 따른 계약체결, 지분관계 등은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 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공장설립 절차

- 생상품목에 따라 공장 설립 절차 및 인가기관이 다르므로 해당 산업 관련법을 미리 숙지하여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탈리아의 느린 행정속도, 복잡한 규제, 각종 관행상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 공장설립의 최종 인가는 SUAP(Sportello Unico per le Attività produttive)의 각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설립 공장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나,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장가동에 필요한)용수 조달 가능 증명서
 - 공장설립허가서
 - 독성물질 배출 및 가스유출 관련 국가보건당국의 허가증
 - 지역 소방당국 발급 화재안전방지 확인서
 - 소음 공해 발생 허가증
 - 공장설립자 신분확인증
 - 토지소유확인증

- Law 46/1990상의 작업장내 안전확인증
- 공장설립 주변지역의 1:2000 척도 지도
- 공장설립지의 1:100 척도 지도
- 공장건설부지의 1:100 척도 지도
- 공장건설활동내용, 종업원수, 인근 건물/도로와의 거리, 공장부지 표면 상태 기술서
- 장애인 접근 허용 확인서

마.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거주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 시 8-18%의 등록세가 부가되며 재산세 2-3%(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공증금 1%, 기타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수반된다. 외국인의 건물 매입 후 임대 가능하며 임대 시에는 소득세 지불 의무가 발생한다. 임대료의 25%까지는 건물 관리비로 간주하여 과세 표준가액에서 공제하며 나머지 75%는 수입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건물 구입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밀라노 등 북부지방의 경우 s/m당 500 유로에서 1,000 유로에 해당하고 있다.
-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영업지역을 관장하는 지방 상공회의소를 방문 그 지역의 매입 또는 임대 가능한 공업용지를 물색
 - 적정 용지 발견 시 매입 가격의 10% 선불 빙서를 첨부한 확인 각서에 서명 후 본 계약서 교환
 - 매입 가격의 40%는 건축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할부로 납부 가능
 - 나머지 매입 잔금의 50%는 건축 완료 후 대상부지가 실지용도로 사용되는 시기에 납부 가능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지대

현재 이탈리아에는 Trieste, Venice 등의 자유 무역지대가 있는데 외국 원산지 제품이 수출용으로 생산 조립되는 경우 무관세 및 면세로 이탈리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서 권장하는 입주 유망분야는 기계조립, 자동차부품 및 약제 사리, 조선 제조업 등이다.

자유무역 지대의 이점은 물품이 여타 EU국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벗어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80일간 관세가 유예된다는 점, 제 3국으로부터 반입 된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를 적용 받는다는 점, 어떤 국적의 입주업체라도 해당국 노동법에 따라 당해 국가의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나. 산업단지

이탈리아의 경우 산업 단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통상 16-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레 형성된 전문 생산지역이다. 동일 분야에 종사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생산공정상의 한 분야를 분업화하고 전문 화하여 상호경쟁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탈리아 산업단지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부는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고 클러스터의 형성은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 산업 단지수는 각 기관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60~2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진흥원(IPI)의 분류에 의한 이탈리아 61개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90만개 창출, 제조업 일자리의 8.6%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99개 산업단지가 이탈리아 제조업 고용 인구의 42.5%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 경제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개발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1)Law 317 of 5th October 1991, art. 36, (2)Decree by Minister of Industry of 21st April 1993, (3)Law 598/1994, (4)Law 266 of 7th August 1997, (5)Law 140/199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중소기업들이 투자가 어려운 부문인 연구, 실험, 파일로트 프로젝트, 데모, 교육훈련, 생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센터 또는 과학단지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정보 수집, 신기술 전파,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출자기관, 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협회들과 협력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반도체 산업 단지로 성장한 카타냐시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투자한 카타냐투자청 (Investia Catania)이 주동적으로 투자 업체를 유치하고 관련제도 개선 제안 등을 적극 수행하여, 산업단지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입지 예정지역의 인구, 전력/용수, 교통망, 원자재 수급 여건 등 기본 인프라의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 또는 EU의 낙후지역개발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수혜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7. 노무관리

가. 노사관계

- 이탈리아에는 3대 전국노조가 있다. the General Italian Confederation of Labour(CGIL), the Italian Confederation of Workers' Union(CISL), the Italian Union of Labor(UIL)이다. 이들은 국제자유무역노조(ICFTU)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 노조는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 사용자단체와 당해 년도 임금상승률, 급여 외 수당, 휴가 등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주도하며, 그 결과는 전국의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 적용 된다.

나. 채용

-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채용기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해져있다. 법률 223/91에 의하면 신규채용의 12%는 장애인 근로자 (dis advantaged worker)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법 시행에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한 고용 계약’(lavoro indifferente)이다. 계절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그러나 고위 관리직(Dirigenti)의 경우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 계약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 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계약에 따른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수습기간

-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기간 한도는 전국 노조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 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에게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전달해야 한다.
- 한편 고용 형태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는 무한 고용 계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3년 이른바 Biagi law(입법자 이름)라 불리는 Decree No. 276/2003에 의해 3가지 새로운 계약형태, 임시직(lavoro intermittente), job-sharing(lavoro ripartito), 부수 노동 (additional work, lavoro accessorio -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고 때에 따라 필요한 청소부, 유모, 정원사 등에 해당)가 신규 도입되었다.

라.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며,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 임금

-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제(INPS), 신고용주세(IRAP)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 차 및 13회 차 급여가 지급되어 1년에 14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13회 차 급여는 당해 연도 1월-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또한 14회 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 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한다.

-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이탈리아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바. 휴일, 휴가 병가

-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 병가는 6개월까지(단체협약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정규봉급 및 직위를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함. 급여는 첫 3일간은 고용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이후로는 사회 보장청이 부담한다.
-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연간 15일의 별도 유급 휴가 가능하다.
-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유급(80% 회사부담, 20% INPS부담) 휴가가 가능하며, 동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사. 해고

- 현행 이탈리아 노동법에서는 (1) 직무 위반,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 사유'(Giusta Causa)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2) 납득할만한 사유(Giustificato Motivo)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수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근로자 등급,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 통지 후 해고 가능하다. 이때 납득할 만한 사유란 '정당 사유' 구성 정도는 아니나 상급자의 중요한 직무지시를 어겼다거나(주관적인 평가), 기계, 비품 등 물질적 손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 만약 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명이 되면 15인 이상 고용기업의 경우는 복직 조치와 함께 최소 5개월 분의 급여 상당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5개월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5인 이하 고용 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인 이상 고용사업체와 동일하나, 노동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복직조치의 의무는 없는 없다.
-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해고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해고절차 전에 노무사, 노동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적법 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관련 소송은 송장과 증거가 최초 변호진술서와 함께 제출되면 일반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는데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 시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판례는 고용주에게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 권익보호 중의 판결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아. 노동 시장 유연화 노력

- 이탈리아 정부는 법령 276/2003을 제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기피 문제 해소를 위해 (1) 기업 경영이 한시적으로 특별히 호조 또는 저조 시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형태 도입, (2) 특정 프로젝트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 고용 허용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8. 조세제도

가. 개요

- 제 1차 및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구미 각국이 세제의 정비를 서둘러 소득세제를 분류소득세제에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였는데 비하여 이탈리아는 자원 수요를 간접세로 충당하면서 소득세제를 개편하지 않아 영. 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몇 번의 세제개혁을 거쳤으며 특히 97년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조세 개혁의 목적은 특히 1) 정부 하위조직의 재정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2)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3) 대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 및 납세자가 따라야 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탈리아의 조세부과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부과조세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록세, 관세가 있다. 지방정부 부과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지방세, 간접세인 부동산보유세가 있다.

나. 세부 세제

- IRES(법인소득세)
 -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해 33%를 과세하며 국내법인이나 외국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외국투자가가 이탈리아 내에 등록, 설립한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법인으로 간주한다. 공제항목이 소득을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걸쳐 이월공제 가능하며 사업개시 3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월 공제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IRE)
 -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비 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소득세 체계로 제반 소득 공제 후 소득액이 2만6천 유로 미만이면 23%, 2만6천 유로 이상 3만3천 5백 유로 미만이면 33%, 3만3천5백 유로 이상 1십만 유로 미만이면 39%, 1십만 유로 이상이면 43%를 과세한다.

- 생산활동지방세(IRAP)
 -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 매출액에 대해 4.25% 과세하는데 주 별로 1% 범위 내에서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부가가치세(IVA)
 -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20%를 과세하며 일부 제품 종류에 따라 4%, 10%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부동산 보유세(ICI)
 - 각 지자체 별로 부동산 등기가치에 따라 연간 0.4~0.7% 과세 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외환규제가 전혀 없으며 완전자유화 되어 있어 내외국인 모두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 직, 간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수지 및 돈세탁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공통규정인 UIC Instruction 2001/3 (2001.12.21 공표)에 의해 12,500 유로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자금수지표에 포함, 보고해야 한다. 모든 외환거래 정보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산하외환관리청(Ufficio Italiano dei Cambi-UIC)로 전달되며 통계처리 보관된다.
 - 자본 본국송금
 - 국경 밖으로의 외환송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법에 따라 12,500 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수지표보고 및 돈세탁방지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함.
 - 이익송금
 - 이탈리아 내에서 실현한 기업의 배당금 및 이익은 자유로이 송금 가능. 자금수지표 및 돈세탁방지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일
 - 로열티 및 수수료송금
 - 관련 서류 및 세제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 없음. 이때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을 적용 받음. 로열티는 2% 미만, 수수료는 2-5% 사이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송금 가능함. 이 이상의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무역거래에 따른 송금
 - 전혀 제한이 없으며, 제반 규정은 동일
- 자금차입 및 상환에 관한 제한 역시 없으나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 쉽지 않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금융업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어 자금 공급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위주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system이며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이탈리아는 총 수입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3,483억 유로, 인구가 약 5,8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나. 한국과의 교역 관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경제-對韓 교역 규모 비교

국가명	인구 (백만명)	GDP (십억 불)	2005년			2006년		
			총 수입액 (백만 불)	韓國 수출액 (백만 불)	韓國 점유율(%)	총 수입액 (백만 불)	韓國 수출액 (백만 불)	韓國 점유율(%)
독일	82.6	2,897	775,553	10,843	1.40	909,523	10,815	1.19
영국	60.3	2,374	502,143	5,510	1.10	564,943	5,433	0.96
이탈리아	58.4	1,854	384,533	4,881	1.27	437,759	4,677	1.07
프랑스	60.9	2,232	503,744	3,415	0.79	534,328	3,850	0.74

주: 인구, GDP 데이터는 2006년 기준
 자료원: EIU, Eurostat

이탈리아는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공업화가 늦은 편이었다. 또한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하고 경제가 EU 편중 경향을 보여 한국과의 외교, 통상 관계가 독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서로 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반도국가로서 지중해 시장의 진출거점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장구조의 복잡성, 언어 장벽 등은 우리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무역구조

주요 수출품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화학 등의 자본집약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소비재 등도 주된 수출 품목이다.

2006년 주요 이탈리아 수출품 현황

품목	금액 (십억 불)
기계 및 전기기기	120.5
섬유, 의류, 가죽제품	51.1
운송기기	44.2
화학제품	40.8
식 음료	22.2

자료원: EIU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 원유 및 원자재, 전자제품, 부품, 기타 일반소비재 등이 있다.

2006년 주요 이탈리아 수입품 현황

품목	금액 (십억 불)
기계 및 전기기기	79.6
에너지 관련 품목	65.9
운송기기	54.2
화학제품	55.8
식 음료	27.5

자료원: EIU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며 EU 25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8.2%를 차지(2006년 기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있으며 EU 2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5.3%를 차지(2006년 기준)한다.

이탈리아 주요 교역국 현황 (2006년)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독일	13.1	독일	16.7
프랑스	11.7	프랑스	9.2
미국	7.5	네덜란드	5.5
스페인	7.2	벨기에	4.2
영국	6.0	미국	3.1
EU25	58.2	EU 25	55.3

자료원: Eurostat

라. 유통구조 및 시장 진출 방안

전국이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시장 구조도 다원화 되어있다. 또한 중소 기업이 산업 및 상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상은 많지 않다. 이에 전문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각 지역별로 상권이 분화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유통구조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형판매점이 확대되고 있다.

유통 구조 면에서 전문 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전국을 커버하면서 對고객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력 유통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반면, 북부 산업지역 각 도시 별로 연중 실시되는 분야별 박람회 (Fiera)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박람회 참가를 통한 시장개척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지 관련 전문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소비시장 특성 파악도 가능하다. 분산되어 있는 시장,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직접 시장 진출보다는 현지 시장에 밝은 에이전트나 현지 딜러를 통한 시장 진출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 입찰의 경우 해외직접 수입의 경우는 거의 없고 자국 내 회사를 설립한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므로 정부 입찰을 추진 할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마. 소비자성향

패션, 디자인에 민감하므로 시장 진출 시 제품의 소재,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국가 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 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 LG, 현대, 기아 등 우리 상품이 활발히 진출하여 자동차, 핸드폰,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해 현지 인지도면에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바. 바이어특성

이메일 또는 문서교환을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상담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어 구사 및 해독률이 낮아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성숙한 거래관계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량 오더부터 성실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LC 개설 비용이 높고 은행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해 결제 지연의 불편이 있는 등 금융 서비스산업이 낙후 되어 있어 자금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거래 시작단계에서 독점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주문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이 요구된다.

이탈리아 바이어특성

T/T	L/C 개설 비용이 높음
외상거래	대금 회수에 60~120일
소액 오더	신뢰구축에 장기간 소요
언어장벽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움
문서화	책임소재, 클레임 대비 (상사증재 활용)
기타	긴 하계휴가, 다소 늦은 회신, 인터넷 속도

2. 물가정보

□ 도시 : 밀라노(이탈리아)			- 환율 : US 1 불 = Euro0.7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Valentino)	1,373.4	7.1	구두(1켤레, 소가족)	151.2
1.2	백타이(1개, 실크100%)	78.12	7.2	차약(150g, 1개)	5.29
1.3	와이셔츠(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90.72	7.3	칫솔(1개)	3.09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3.4	7.4	면도기(1세트)	8.1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323	7.5	건전지(1세트, 1.5V AA)	5.92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78	7.6	화장지(1통, 300매)	7.97
1.7	청바지(Levi's)	126	7.7	비누(1개)	0.95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22.0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2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3	8.2	볼펜(12개)	3.7
2.3	닭고기(1KG, 생닭)	5.17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6.05
2.4	쌀(1KG, Short Grain)	2.6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7.37
2.5	밀가루(1KG)	0.6	8.5	휴대폰(Nokia 6170)	211.68
2.6	설탕(1KG, 백설탕)	1.63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5
2.7	계란(10개)	2.52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126
2.8	감자(1KG, 현지산)	2.4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81.9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0.88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2,579.2
3.1	고추장(1Kg)	9.83	9.2	엔진오일(1L)	9.45
3.2	된장(1Kg)	3.02	9.3	휘발유(1L)	1.51
3.3	라면(1개)	1.5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567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23.94	9.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953
3.5	불고기(1인분, 200g)	23.94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3.94	10.1	지하철(1구간)	1.26
3.7	김치찌개(1인분)	23.94	10.2	시내버스(1구간)	1.26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4.41
4.1	햄버거(1개)	3.78	10.4	택시(추가요금/Km)	1.65
4.2	피자(1판)	11.21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4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포함)	189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15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8.36
4.5	담배(수입산, 1갑)	4.6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15
4.6	위스키(1병, 750ml)	25.7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5
4.7	커피(1병, 175g)	6.84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3.6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76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2,898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1.01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410	11.8	특급우편 (DHL1개, 1Kg 이하, 현지-서울)	59.2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26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2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78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08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77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28.74			
6.2	VTR(6헤드, 범용)	112.14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88.07			
6.4	전자레인지	113.2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2,057.4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437.22			

□ 도시 : 밀라노(이탈리아)			- 환율 : US 1 불 = Euro0.7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7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26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1,26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2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693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41%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3,545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4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6,915.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8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8,736.2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100.8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75
13.2	골프장회원권(18홀,매매가능,중신 양도가능)	63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44.1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250	19.1	법정최저자금	15,12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8.9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276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9.77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50%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3,038.49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4~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132.3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189		※ 18.5 남녀모두 적용됨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6.3		※ 18.8계약에 따라 2~3개월 수준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0.24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71.82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5.04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531.72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428.4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365.4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82.7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45.36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45.36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52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890			

3. 바이어 발굴

가. 신문 및 잡지 광고

- 신문 및 잡지는 이탈리아 광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신문은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광고 채널이다. 이탈리아 신문사들은 직접적으로 광고관련 부서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광고 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장소에서 다수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고 자사 제품의 품질 수준 및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좋은 제공한다. 특히 동종 경쟁 업체의 상황 및 전반적인 업계 트렌드도 알 수 있으므로 관련 전시회는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밀라노는 유럽 전시회의 중심지로 특히 연간 전시회 개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밀라노 전시장 홈페이지 www.fieramilano.it).

EU 2대 전시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

발달된 전시산업

- 연간 1,000여 개 전시회 개최
- 연간 20,000여 개 이탈리아 업체 참가
- 연간 2천만 명 전시회 참관
- 연간 600억 유로 전시회 관련 매출

First 10 Exhibition Sites in the World	Gross Indoor Capacity (Sq. metres)
1 Hanover	495,000
2 Fiera Milano (Two venues)	470,000
3 Frankfurt	322,000
4 Cologne	284,000
5 Paris-Nord (Villepinte+Le Bourget)	270,000
6 Dusseldorf	252,000
7 Valencia	231,000
8 Barcelona (Montjuic+Gran Via M2)	229,000
9 Paris Expo	227,000
10 Chicago	204,000



다. 시장개척단 참가

- 코트라와 같은 해외 마케팅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바이어와의 일대일 미팅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업체를 국내에서 직접 발굴할 경우 언어 및 상관습의 차이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지 네트워킹이 있는 기관을 활용 하여 바이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기간에 바이어 발굴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이어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유용한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라. 이탈리아 주요 협회 리스트

※ 굵은 알파벳 부분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화학 및 제약

- **Federchimica** (National Chemical Industry Federation)

2) 의류 섬유 신발

- **SMI** (Italian Association of Textile and Apparel Manufacturers and Related Industries)

3) 문화 레저

- **AFI** (Italian Record Producers Association)
- **AIE** (Italian Publishers Association)

4) 기계 및 장비

- **ACIMAF** (Italian Wire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 **ACIMALL** (Italian Woodworking Machinery and Tool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CIMIT** (Italian Association of Textile Machinery Producers)
- **AFEMO** (Association of Jewelry Machinery Manufactures and Exporters)
- **AIAD** (Italian Industries Association for Aerospace Systems and Defense)
- **AICE** (Italian Cables and Energy Cabl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MAFOND** (Italian Association Producers of Foundry Products and Machines)
- **ANCMA** (Italian Cycle, Motorbike and Accessori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NFIA** (Italian Motor Industry Association)
- **ANIMA** (Federation of the Italian Associations of Mechanic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 **ASSIOT** (Italian Association of Gears and Transmission Elements Manufacturers)
- **ASSOCOMAPLAST** (Italian Plastics and Rubber Processing Machinery and Mould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SSOFLUID** (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and Trading Companies in Fluid Power Equipment and Components)
- **ASSOFOND** (Italian Association of Foundries)
- **ASSOMAC** (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Machines for Footwear, Leather Goods and Tanneries)
- **ASSOMARMOMACCHINE** (Italian Ornamental Stones and Stone Processing Machinery and Equipment Producers Association)
- **COMAMOTER** (Italian Association of Earthmoving Machinery Manufacturers)
- **GIMAV** (Italian Glass-Process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Suppliers' Association)
- **ITALIANMEC.COM** (The Portal of Italian Mechanic: a web site of ANIMA, Federation of the Italian Mechanical and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s)
- **OICE**(Association of Engineering, Architectural and Technical-Economic Consulting Organizations)

- UCIMU (Association of Italian Manufacturers of Machine Tools, Robots, Automation Systems and Ancillary Products)
- UCISAP (Italian Association of Precision Moulds, Dies and Tooling Manufacturers)
- UNACOMA (National Federation of Italian Manufacturers of Tractors, Agricultural Machinery, Gardening Machinery and Earth Moving Machinery)

5) 가구

- CIAB (Italian Association of Bathroom Furnishing Manufacturers)
- FEDERLEGNO – ARREDO (Italian Federation of Wood, Cork and Furnishing Industry)

6) 사회간접자본

- AISCAT (Italian Association of Motorways and Tunnels Concessionaires)
- ASSINFORM (Italian ICT Companies Association)
- ASSOELETRICA (National Association of Electricity Enterprises)

7) 포장 제지 인쇄

- ACIMGA (Itali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Machinery for the Graphic, Converting and Paper Industry)
- ASSOCARTA (Italian Paper and Board Industry Association)
- GIFLEX (Italian Association of Printed Flexible Packaging Converters)
- UCIMA (Italian Association of Automatic Packing and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마.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KOTRA 밀라노무역관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 이용(www.kotra.or.kr/milano)
- ICE 에서 운영하는 Italtrade.com 홈페이지 Business Directory 이용 (www.italtrade.com)
- 전자 거래 알선 사이트 활용
 - ETOs(Electronic Trading Opportunities) 사이트에서는 인콰이어리, 상품 카달로그 및 기업 디렉토리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사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오퍼 타입 (Buy/Sell)별, 품목별 및 업체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음.
 - 전세계에는 UNCTAD 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연합 사이트(www.wtpfed.org)를 포함하여 현재 약 1,000 여 개의 ETOs 사이트가 있음.
 - World Trade Point Federation (<http://www.wtpfed.org/>)
 - Kompass Directory (<http://www.kompass.com>)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Online (<http://world.wtca.org/portal/site/wtcaonline>)
 - Yellow Pages Directory on the Web (<http://www.infobel.com>)
 - EC21(<http://www.ec21.com/>)
 - Asian Sources Online(<http://www.asia.globalsources.com/>)

- 이탈리아의 온라인 기업 디렉토리
 - Italiandomains (The Italian Domains Directory)
 - ItalyBusiness.net (Suppliers, Buyers, Products)
 - Italytrade (Italian Importing and Exporting Companies)
 - Pagine Gialle on line (Italian Official Yellow Pages)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거래 시 유의사항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경험이 많은 대기업인 경우 FOB조건도 받아들인다. 거래 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할 시 2~5% 할인이 있을 수 있으며 할인 정도는 대금 지불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외상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 기간은 업체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일~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며 L/C 거래를 선호하지 않아 매출이 늘어갈수록 외상매출금도 커지게 된다. 이에 매출확대와 대금회수 사이의 위험성을 잘 판단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와 같은 상거래 방식으로 수출대금 회수 기간 동안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금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탈리아인들은 라틴계 국민들의 전형적인 악습인 무책임과 약속 위반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좋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mail, 팩스 등도 소송이나 분규 발생시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은 잘 프린트해서 보관함으로써 언제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날짜, 수신인, 가능하다면 수신확인까지 증빙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기타 분쟁 발생시에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법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경우에도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래조건과 대금수령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비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해야 한다. “대략 얼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 〇〇〇건 얼마”식으로 철저히 문서로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시 유의사항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 바이어의 회사 및 제품 관련 문의에 신속한 답변을 통한 신뢰 구축하고 미팅 약속 시간에 정시 도착하고 미팅에는 정장으로 참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호칭을 부를 시에는 Mr.---와 같이 정식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치, 종교 등의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탈리아 문화, 역사, 요리 등에 관한 화제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이탈리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상담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문화, 역사 등의 이야기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된 후 실제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 이탈리아인들의 職場觀(직장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편적인데 비해 이탈리아인들은 이 같은 의욕이 그리 없다고 할 수 있다.
- 직원에게 포상하거나, 혜택을 줄 때 이러한 것이 영속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고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 직원들은 이를 자신이 “획득한 권리”고 여기며 향후 지속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의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 기업 활동을 위해 인력의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친 과목은 불어, 독어 등으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았으며 최근 10여 년 정도부터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각종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직급에 맞는 책임자를 선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직원 및 생산직의 경우 인력 공급회사(용역회사)를 통해 선발하면 시간, 경비 및 고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인력을 채용할 때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도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이탈리아 사람들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 중남부 사람들은 좋은 기후와 농업 근간의 마인드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업적인 성향이 부족하다. 하지만 북부사람들은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이면 매우 철저하게 따지는 등 오히려 북부유럽인 성향이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업 및 자금 관리 상 애로 사항

- 이탈리아에서 처음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탈리아의 영업환경이 신용에 의한 외상거래라는 점이다. 매출이 늘어나면 외상매출금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결국 은행의 한도를 관리하고 동시에 채권관리만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외상매출금 및 운영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적은 자본으로 유통산업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출

채권을 부보하는 신용보험도 있지만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보상금액도 전액 이 아닌 70% ~ 80% 수준에 불과하다.

다. 금융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system 이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은행의 한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라. 세금 관련 애로사항

- 이탈리아는 만성 재정적자 국가로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20%로서 매우 높은 편이며 외상거래가 전체인 거래관습상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상 일시적 자금부족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지연납부 하게 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 이탈리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가끔 “condono(사면)”라는 한시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누락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고 사면 받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시행 기간 중 본의든 혹은 실수로 발생한 미신고 세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사면 받게 된다.

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이용 시 유의점

- 이탈리아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문가를 소개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전문가집단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유용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만큼 많은 보수를 요청할 수 도 있다.

바. 수출 시 추가 증빙요구

- 이탈리아는 현재 우리나라를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에 수출하실 때에는 조세특례법상의 조세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 필요 하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탈리아 소득세법(Italian Income Tax Act, D.P.R 22.12.1986, no 917)의 Article 110, paragraphs 10 및 11 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이 비EU국가이면서 조세특례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기업과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와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조세특례국에 위치한 기업에서 수입한 이탈리아 법인은 수입금액을 비용 항목으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 원가와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기업이 해당 공제 대상 비용이 자신의 실질 경제 목적을 위해 실제로 발생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조세특례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D.M 23-01-2002로 이탈리아 정부는 조세특혜지역을 특혜 범위에 따라 3개로 구분하고 있다.
 - 1항은 포괄적 조세 특혜 지역으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
 - 2항은 일부 예외를 인정한 포괄적 조세특혜지역으로 바레인 등 4개국을 열거
 - 3항은 일부 경우에만 조세특혜제도가 있는 지역으로 한국, 앙골라, 도미니카 등 14개국을 열거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TILL, Tax Incentive Limitation Law)에 의한 특혜를 명시
- 조세특례국 리스트는 2002년 2월4일부터 실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제품 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한국기업들이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나 외국기업의 실질적 상업활동 수행 관련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 이탈리아 조세당국은 외국기업의 실질적 상업활동의 증명 또는 조세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한 특정 서식이나 일반적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수출기업 애로 사항 및 대응 상황
 - 주재국 과세 당국의 제도 운영상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대사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확인 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필요 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대사관의 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무역부분 성공사례: CU Medical

□ 기업개요

- 회사명: (주) 씨유메디칼시스템 (CU Medical Systems, Inc.)
- 대표자명: 나학록
- 설립연도: 2001
- 주요제품: 심장충격기 (Defibrillator), 심전계 (ECG Monitor)
- 연락처: (T) 033-747-7657, (F) 033-747-7659
 - 동사의 체외형 자동 심실세동기는 환자에게 부착된 전극을 통해 심전도 신호를 자동 분석한 후 심실 세동(VF)이나 심실빈맥(VT) 등의 부정맥 신호를 음성 및 문자 정보로 응급구조사에게 알려 줘 환자에게 신속하게 전기충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체외형 자동 심실세동기(AED)는 수동형 심장충격기와 달리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효과적이다.
 - 동사의 성공배경으로는 우선 뛰어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CU Medical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심장충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2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KT마크, ISO9001, CE마크 등도 획득하였다.
 - 특히 동사가 개발한 자동 체외형 심실 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심장기능을

전기충격으로 회복시켜주는 제품이다. 세계적으로도 10여 개 업체만이 상용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씨유메디칼시스템이 거의 유일한 생산 업체이다. 이 제품은 학연 공동연구(상지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를 통해 개발되었다.

-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구급차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현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유럽 의료기기 전문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6년 AED 시장 규모는 8억8천만 달러, 수동형을 포함하면 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있으며 현 추세로는 매년 20%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동 제품 관련 이탈리아 의료기기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은 CU Medical 및 동사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향후 동사 신제품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 시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투자부분 성공사례: 종근당

□ 모기업 개요

- 회사명: (주) 종근당
-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 종근당빌딩
- 대표자 성명: 김정우, 이장한
- 연락처: (T) +82-2-2194-0300 (F) +82-2-2194-0335

□ 현지 진출 개요

- 현지 법인명명: BARDIAFARMA S.p.A.
- 주소: Frazione Domodossolina, I-26851 Borgo S. Giovanni (LO), Italy
- 연락처: (T) +39-0371-210785 (F) +39-0371-935429
- 종근당은 2002년 이탈리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Bardia Farma S.P.A 지분 100%를 매입 하여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였다. 원료 항생제 특히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문 생산 업체로서 최신 설비를 통해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유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인 50명을 고용하여 전 세계 약30여 국의 완제 제약회사에 원료 항생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본사를 포함 한국기업에도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본래의 투자 목적을 이루고 있다.
- 진출한 이래 약50%의 성장을 보였으며, 본사의 對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관련 산업의 정보 수집 그리고 본사의 유럽진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상의 애로사항으로는 특허만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제품 개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들고 있다.
- 현재는 인도, 중국 등 후발 업체들의 약진으로 어려운 입장이나 몸집이 적은 기업으로서의 순발력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선진국 시장 및 niche market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현지 체류를 위한 기본 서류 준비

1) 체류 비자발급

- 이탈리아에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 체류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 이탈리아는 입국 후 3개월간은 비자 없이도 체류가능하나 지사설립 등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적합한 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이탈리아에 입국했을 경우 비자는 외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되므로 비자 재발급을 위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한다.

2) 체류허가증 신청

- 체류허가증(일명 쏘조르노, Permesso di Soggiorno)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사설치나 학교 입학 전과정에 걸쳐 번번히 요구되는 서류이다.
- 이탈리아의 경우 한국에서 보통 1년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여 동 비자를 바탕으로 체류허가증을 현지에서 신청, 발급 받게 된다. 최초 발급 이후 일정기간(보통 1년이나 2년)이 경과하면 체류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에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고 있고 이탈리아정부의 철저한 관리등으로 신청,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

3) 세무번호 발급

- 이탈리아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허가증 신청과 더불어 세무번호(codice fiscal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는 은행구좌 개설, 자영업 사업 개시시, 피고용자로의 취직시, 의료보험 등록시 등에 필요하며 일종의 신분번호로 쓰이기도 한다.
-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과 체류허가증이며 비자가 있는 여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제부 소속 Agenzia dell' Entrata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신청한 날 즉시 발급 받게 된다.

나. 집 구하기

- 집을 구하는 방법은 우선 복덕방에 구하고자 하는 집의 조건과 지불 가능한 월 임대료 수준을 이야기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복덕방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통상 년 임대료의 15%를 복덕방비로 지불 해야 한다. 집은 FUNISHED 된 경우와 UNFUNISHED된 경우가 있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시 통상 2-3개월 치 임대료와 대략 3달치 정도의 보증금을 선불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추후 집 계약이 완료

되었을 때 집 사용에 따른 하자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기한 전에 집을 비우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주인에게 고지하여야 손해가 없다.

- 임대 계약은 통상 2년이며 주인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며 필히 계약 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덕방을 통하지 않는 경우 "SECONDA MANO"등의 관련 주간지 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에 직접 연락 하여 구할 수 있다. 그 외 복덕방비를 받지 않고 집을 소개 해주는 전문업체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개비로 약150유로를 받으며 제공되는 집의 정보가 선별된 것이 아니고 SECONO MANO에 실렸던 정보를 무작위로 모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 거주 신고

-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COMUNE (동 사무소)에 가서 거주 신고(RESIDENZA)를 해야 한다.
- 거주허가증(일명 '레지덴짜'라고 함. Certificato di Residenza)은 이탈리아에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아파트 또는 사무실 계약, 전기, 전화 가스신청, 이사징 통관 등에 필요하다. 거주구역의 구청(comune)에 신청, 발급 받게 된다.
- 체류허가증(쏘조르노) 사본, 여권사본, 주택임대계약서(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음)등이 필요하다.

라. 인터넷 및 전화신청

- 최근에는 인터넷과 일반유선 전화가 동시에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을 신청할 때 유선전화 사용을 같이 신청한다. 비용은 인터넷 및 시내 유선전화 무한대 사용 서비스가 2개월에 약 170 유로 선이다.

마. 운전면허 교환

- 한국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주므로 현지에 와서 교환하면 된다. 한국 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바꾸는 경우를 Conversione Patente Estera라고 하며, 운전학원(Auto scuola)을 통하거나 이탈리아경찰청(Motorizzazione)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바. 자동차 구입

- 자동차 구입에는 체류허가증, 세무번호, 거주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동차 구입은 주거지 가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된다. 거주자등록증은 발급에 통상 수개월(밀라노지역의 경우 6개월~1년)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자등록증 발급 전 차량구입시에는 거주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대체되기도 한다. 자동차 구입시 계약 액으로 지급된 금액은 해약 시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계약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 신차 구입은 각 지역소재 자동차 대리점(주로 시외곽에 위치)을,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대리점이나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www.secondomano.it 등)에서 검색,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중고차 구입은 사기가 많아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

사. 자녀교육

- 이탈리아는 초등학교(5년) - 중학교(3년) - 고등학교(5년) - 대학교(3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 학교는 의무교육이다. 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선택할 수 있다.
-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 자녀의 상당수는 영, 미 계열의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데 밀라노 지역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 AMERICAN SCHOOL OF MILAN
 - 주소: 20090 Noverasco di Opera, Milano, Italy
 - 전화 +39- 02- 5300001
 - 팩스 +390 02- 57606274
 - 이메일 admissions@asmilan.org
 - 홈페이지 www.asmilan.org
 - BRITISH SCHOOL OF MILAN
 - 주소 Via Pisani Dossi 16, Milano, Italy
 - 전화 +39- 02- 26413310
 - 팩스 +39- 02- 26413515

아. 은행구좌 개설 및 현금/신용카드 신청

- 은행구좌개설 신청은 체류허가증과 세무번호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하여 소정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즉시 개설된다. 이때 현금직불카드(BANCOMAT)도 같이 신청한다. 신용카드는 신청 후 약 1개월이 소요된다.
- 은행구좌 개설 시 한국은 개인이 비밀번호를 정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발급해주므로 비밀번호를 분실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병원

- 이탈리아의 모든 거주자는 이탈리아의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의료보험과 연금이 합해져 공제가 되나 무소득 근로자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월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 등록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를 직접 방문, 간단한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공의료보험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외국인들 또는 부유층의 경우 사설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일반

-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전국적으로 온화한 편이나 북부 지역 일부는 대륙성 기후이다.

- 한국과 같이 4 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나 북태평양과 시베리아 대륙이 있어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매우 추운 한국과는 달리 여름에 기온이 높더라도 그늘로 들어 가면 한결 시원해지고 겨울에도 한국과 같이 춥지는 않다.
- 따라서 출장 시에는 한국에서 입는 것과 같은 계절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면 되나 햇빛이 강한 편이므로 선글라스를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수량

- 중·남부에서는 겨울철 강수량이 여름철의 5~6 배에서 10 배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마다 강수량 변동은 크지만, 대체로 평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0 mm 이하이며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3) 기온

- 여름의 평균 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정도로 온난하다.

밀라노 지역 연간 기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온	최고	4.5℃	7.9℃	12.9℃	17.6℃	22.2℃	26.1℃	28.6℃	27.5℃	24℃	17.6℃	10.4℃	5.3℃
	최저	-1.7℃	0.1℃	3.3℃	6.9℃	11.2℃	15.1℃	17.2℃	16.5℃	13.3℃	8.2℃	3.8℃	0.4℃
강수량	61mm	58mm	71mm	85mm	98mm	81mm	68mm	80mm	82mm	115mm	105mm	74mm	

4) 이탈리아 날씨 검색 홈페이지

- http://www.kweather.co.kr/forecast/world/sub_eu.html?country=italy&weather=eu012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 시차는 우리 나라보다 8 시간 늦으며 3 월 마지막 일요일에서 10 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서머타임으로 1 시간 이른 7 시간의 시차가 있다.

2)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기관과 업체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근무하며 은행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 30 분까지, 오후 3 시부터 4 시까지 근무한다. 일반상점이나 소형슈퍼마켓의 경우 오전 8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오후 3 시부터 7 시까지 문을 연다. 대형 슈퍼마켓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 8 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오전에만 영업한다.

- 한편 7 월 중순부터 8 월 하순까지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가를 실시하므로 업체 방문 출장은 지양해야 한다. 12 월 중순부터 이듬해 1 월 중순까지도 휴무일이 많으므로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패션 관련 전시회와 행사가 집중되는 2 월 중순부터 3 월 하순, 9 월부터 10 월, 가구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4 월은 호텔 예약과 관련 업체 면담이 어려우므로 출장 계획 수립 시 주의해야 한다.
- 일반적인 근무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 08:00~14:00 (토, 일 휴무)
 - 은행: 08:30~13:30, 15:00~16:00 (토, 일 휴무)
 - 주유소: 10 월~4 월 07:00~12:30, 15:00~19:00,
 - 5 월~9 월 07:00~12:30, 15:30~19:30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Self-Service 는 24 시간 이용가능
 - 세탁소: 09:00~13:00, 15:30~19:30 (일, 월요일 오전 휴무)
 - Supermarket 은 점심시간 없이 보통 10:00(이른 곳은 08:00)~20:00 까지 영업함

다. 도량형

- 미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기본 도량형은 동일하다.

측정 물리량	단위
길이	mm, cm, km
무게	mg, kg
넓이	cm ² , m ²
부피	cm ³ , m ³ , km ³ , L, cL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 비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재외 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2006 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체류기간이 90 일 이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 한. 이탈리아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 일 이내의 단기 방문 시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EU 내 15 개 국가는 쉥겐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체류 관리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 동 조약은 어느 일방 조약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제 3 국인에게 최초 입국일자로부터 90 일간 전 조약체결 국가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이탈리아, 스페인, 불란서 등의 쉥겐 조약국을 무비자로 관광 체류할 수 있으나 총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짜로부터 6 개월 간 9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90 일 이상 체류하는 유학이나 취업의 경우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발급의 자세한 절차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98, 전화: 02-796-0491~4)

2) 입국 절차

- 비행기에서 내린 후 Arrivi(도착)표시를 따라가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게 된다. 입국 심사대는 EU 여권소지자와 그 외 지역 여권 소지자가 소속하는 창구로 나뉘어 있으며, 한국인은 그 외 여권 소지자가 소속하는 창구에서 소속해야 한다. 보통 관광객이나 단기 출장의 경우 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통과된다.
-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에는 타고 온 항공편 명이 표시된 벨트 컨베이어에서 짐을 찾고 세관으로 향하게 되는데 세관검사는 자진 신고제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출구로 나간다.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장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여권번호 기재 요망)를 한 후 경찰서 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2 매, 신분증을 지참하여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공항에서 밀라노 시내로 가는 방법

- 말펜사 공항의 경우 말펜사공항-밀라노북역(카도르나 역)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인 말펜사 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45 분 정도면 밀라노 시내에 들어올 수 있으며 말펜사공항-중앙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1 시간 정도 소요된다.
- 리나테 공항의 경우 리나테공항-중앙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30 분이 소요 되며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리나테공항-산바빌라 광장을 운행하는 73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되며 소요시간은 약 30 분이다.

4) 예방접종

- 별도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5) 재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 주소

Via Barnaba Oriani 30 - 00197, Roma, Italy(로마시내 북쪽 Parioli 지역에 위치)

□ 전화/팩스번호

- 대표전화: (국가번호 39) 06-802 461
- FAX 번호: 06-8024-6259
- 영사과 전화번호: 06-8024 6223(여권.비자)
- 영사과 FAX 번호: 06-8024-6262
- 휴일 여권 분실: 340-5817948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2:30, 14:30-17:3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30-12:00, 14:30-16:30

마. 환율/환전

1) 통화 단위 및 종류

- 통화 단위는 유로화 이고 통화의 종류는 지폐(500유로, 200유로, 100유로, 50유로, 20유로, 10유로, 5유로)와 동전(2유로, 1유로, 50유로센트, 20유로센트, 10유로센트, 5유로센트, 2 유로센트, 1유로센트)이 있다.

2) 환전

- 환전 장소는 공항, 호텔, 은행, 거리의 환전소등이 있다.
- 환전은 보통 공항, 호텔, 은행, 관광지나 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전소에서 할 수 있다. 호텔이 일반적으로 환율이 가장 불리하며 은행이 가장 유리하나 은행 환전의 경우 수수료를 받으며 호텔이나 거리의 환전소는 보통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환율이 불리하다.
-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여러 차례 환전하며 수수료와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한번에 일정 금액을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달리는 현지에서 통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로로 환전하여야 함. 가능하다면 출입국시 공항에서 환전을 미리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 이탈리아 은행 근무시간은 은행마다 상이한데 보통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2 시 30 분까지 영업 후 문을 닫고 다시 오후 3 시부터 4 시까지 문을 열어 일부 은행의 경우 들어 가기 전에 은행 앞에 설치된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들어가야 하며 몸에 금속제의 물건이 있으면 전자식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
- 참고로 환율계산기의 웹사이트
- Economist紙 홈페이지: http://www.economist.com/markets/Currency/Index.cfm?city_id=MIL

3) 신용카드

- 비자나 마스터 카드가 있으면 물품 구입에 불편이 없으며, 대부분의 은행창구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호텔이나 렌터카를 예약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카드마다 하루 인출 액수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직불카드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 가운데 국제용으로 Plus, Cirus 마크가 찍힌 것을 이용하면 이탈리아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결제는 그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나 단 1 회 인출 한도액과 수수료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항공편

- 로마의 경우 대한항공과 알리탈리아 항공이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두 항공사 모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운항한다. 유럽을 경유할 경우 파리에서 2 시간, 프랑크 푸르트에서 2 시간, 취리히에서 1 시간 30 분, 암스테르담에서 2 시간 30 분 가량 소요 된다. 밀라노의 경우 말펜사나 리나테로 가는 직항 노선이 한국에서 없으므로 파리, 런던, 프랑크 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에서 갈아타야 한다. 일본에서는 직항이 있으며 나리타 공항 에서 밀라노까지 약 13 시간 소요된다.
- 이탈리아에는 대한항공, Air France, Nippon Air, British Air, Cathay Pacific, Delta Airline, Finnair, JAL, KLM, Lufthansa, Singapore Airlines, JAL 등이 취항하고 있다.

2) 시내교통

□ 지하철

- 밀라노와 로마는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로 지하철을 통해 대부분의 관광지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밀라노 지하철노선은 총 3 개로 1 호선 붉은색, 2 호선 초록색, 3 호선 오렌지 색으로 구분됨. 지하철 역에는 M 자가 붙은 붉은 표지판이 있어 쉽게 눈에 띈다.
- 출장 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노선은 1 호선과 3 호선으로 1 호선에는 밀라노의 중심인 두오모(Duomo)역을 비롯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는 카이롤리(Cairolì)역과 밀라노 전시장 (Fiera Milano)로 이어지는 로(Rho)역이 있으며 3 호선에는 밀라노 철도 교통의 중심인 중앙역(Centrale F.S.), 패션과 명품의 거리로 이어지는 몬테 나폴레오네(Monte Napoleone)역이 있고 1 호선과 3 호선은 두오모(Duomo)역에서 교차한다.
- 승차권은 지하철 역에 있는 자동발매기나 티켓판매소 또는 T 마크가 있는 타바키나 일부 신문가판대(Edicola)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밀라노 지하철 승차권은 지하철, 버스, 트램 공통이며 1 회 승차 시 요금은 1 유로이며 75 분간 유효하다. 현금 승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한편 지하철 승차권인 1 회권, 1 일권, 까르네(Carnet)로 불리는 10 회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출장기간과 목적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철을 탈 때에는 개찰구에 있는 개찰기에 반드시 개찰을 하고 승차권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일권은 처음 사용할 때만 개찰을 하고 두번째 부터는 역무원에게 보여주고 바가 없는 통로로 나가면 된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진행방향의 종점역과 그 방향의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승차해야 한다.
- 지하철에서 내리면 다시 개찰구로 나와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다시 표를 제시하거나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바를 밀고 나오면 된다.

- 이탈리아 출장시 자주 가게 되는 밀라노 Rho 전시장은 시외각에 있어 2 구역 지하철표를 구입해야 한다. 가격은 2.05 유로로 갈 때 2 장을 구입하여 갈 때 1 장, 올 때 1 장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시회장은 붐빌 때가 많아 표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할 지하철 노선은 1 호선 붉은색 노선이며 하차할 역은 Rho 역이다.

□ 버스

- 3 개 노선인 지하철과는 달리 버스는 노선이 많으며 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색깔은 오렌지색이며 지하철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과 달리 노선이 복잡한데다 한국과 달리 차내 방송이 거의 없어 처음 이용하는 출장자는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노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한국과 달리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차권을 구입하여 승차해야 한다. 승차한 다음에는 버스 뒤쪽에 있는 개찰기에서 개찰해야 하며 하차는 한국과 비슷하여 내릴 곳이 가까워지면 벨을 누르고 내리면 된다. 버스표는 75 분 내에서 다른 버스나 트램으로 계속하여 갈아 탈 수 있다.

□ 택시

- 출장 시 가장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인 택시는 콜택시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화로 직접 부르거나 호텔, 식당, Bar 등에서 호출을 부탁하면 된다. 밀라노지역에는 주로 02-4040, 02-6969, 02-8585 의 3 개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기본요금은 3 유로이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시내 중심부 두오모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8~10 유로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리나페 공항까지는 약 15~20 유로가 나온다.
- 택시를 이용할 때 반드시 tip 을 줄 필요는 없으나 팁을 줄 경우 센트단위 요금을 반올림하여 주는 정도가 보통이다. 또한 택시를 부를 경우 부르는 순간부터 요금이 올라가므로 택시가 도착했을 때 기본요금이 3 유로 보다 높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트램

- 시내 구석 구석을 달리는 전차로서 서점 등에서 노선도를 구입할 수 있다. 승차권은 버스, 지하철과 공용이며 승차권을 구입해 처음 탈 때는 차 안에서 개찰해야 한다.

□ 철도

- 중앙역을 이용하면 각 지방 여행이 가능하며 승차권은 역의 창구나 여행사에서 구입하며 역에는 자동 발매기도 있다. 역의 창구에서는 승차권을 2 개월 전부터 출발 시각 3 시간 전 까지 예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열차 타는 방법

- 승차권 구입: 승차권 종류를 정한 뒤 승차권 매표소 앞에 줄을 서서 승차권을 구입
- 개찰: 플랫폼 입구에 있는 노란 개찰기에 '찰각' 소리가 날때까지 승차권을 집어 넣음
- 플랫폼 확인: 출발(partenza) 게시판을 보고 자신이 탈 열차의 출발 플랫폼을 확인
- 승차: 승차권을 보고 몇 호차인지 확인 후 탑승. 예약이 아닌 경우에는 예약석(Posto prenotato)이라는 표시만 없으면 어디에도 앉을 수 있음.

3) 우편

- 우편물의 경우 주소는 한국어로 적어도 되나 항공편으로 보낼 경우 'Per Via Aerea' 라고 반드시 적어야 하며 우표는 T자 간판이 붙은 타바끼, 호텔 프런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영업 시간은 규모가 큰 시내 중심 우체국은 월~금 08:30~19:00, 토 08:30~12:00이며 기타 지국은 월~금 8:30~14:00, 토 8:30~12:00까지 영업한다.
- FEDEX나 DHL 등 다국적 기업의 국제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
 - DHL 연락처: 0275 4119 1
 - FEDEX 연락처: 800.123.800

4) 전화

- 공중전화는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전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카드는 매점, 타바끼 등에서 판매하며 이용방법은 발행 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쪽 모서리를 떼어 낸 후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카드 잔액이 표시 되면 번호를 눌러 통화하면 된다.
- 국제전화는 보통 선불카드를 이용하는데 카드 뒷면에 있는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구입한 금액만큼 통화가 가능하다. 공중전화, 일반전화, 호텔 객실에서도 통화가 가능하여 이용이 편리하다. 통화료가 상대 적으로 저렴하며 보통 10 유로, 5 유로 카드가 일반적이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카드는 Bright Card 나 Wisecalling Card 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관광지이기도 한 밀라노는 1 성~5 성급까지 호텔이 다양하나 가격은 여타 유럽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다.
- 패션 관련 전시회와 행사가 집중되는 2 월 중순부터 3 월 하순, 9 월부터 10 월, 가구 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4 월은 호텔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숙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한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는 7 월과 8 월에는 중급 이하의 호텔들도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출장 시 확인이 필요하다.

□ 예약 방법

- 출장 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서 직접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호텔가이드 웹사이트(www.hotelguide.com)에서 적당한 호텔을 찾아서 예약할 수 있다.
- 팩스로 예약할 경우 숙박기간, 숙박인원, 원하는 객실형태, 예약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입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예약 할 수 있다. 단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빨리 호텔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무단으로 취소할 경우 벌금이 신용카드에서 인출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 호텔 연락처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호텔
 - 4성급, 전화 39-02-67551, 싱글 145 유로, 더블 185 유로
- 소페르가(Soperga) 호텔
 - 3성급, 전화 39-02-669-0541, 싱글 80~160 유로, 더블 90~212 유로
- 사라(Sara) 호텔
 - 3성급, 전화 39-02-20-17-73, 싱글 45~52 유로, 더블 68~75 유로

2)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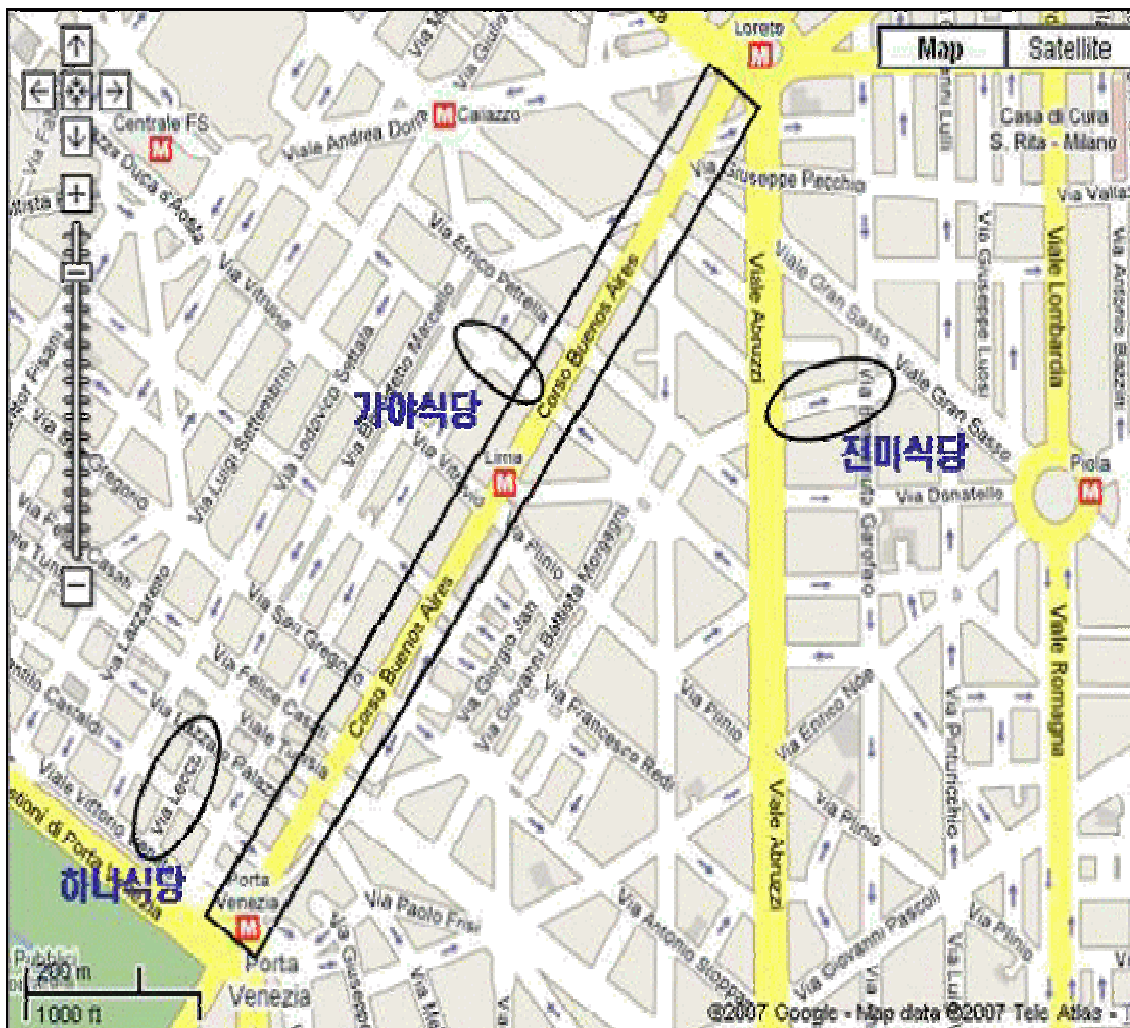
- 피자과 스파게티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탈리아는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부터 고급 음식점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 가장 일반적인 리스토란테(Ristorant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스토랑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급 식당까지 종류가 많다. 안티파스토(Antipasto, 전체), 프리모피아토(Primo piatto), 세콘도피아토(Secondo Piatto), dolce(Dolce, 후식) 코스 전체나 코스 중 일부를 선택해 식사를 하게 된다.
- 프리모피아토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탈리아 요리인 스파게티를 포함한 각종 파스타, 리조또 등 해당되고 세콘도 피아토에는 야채를 곁들인 고기나 생선이 나온다.
- 보통 식당에서의 저녁식사는 8시부터 시작되며 중국식당의 경우 빨리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7시부터 문을 여는 곳도 있으므로 바이어와 저녁식사 미팅을 잡을 때는 우리와는 다른 식당 영업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자를 파는 곳은 피제리아(Pizzeria)인데 리스토란테처럼 정식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사 갈 수도 있다. 또한 역 주변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조각 피자를 파는 곳도 있는데 출장 중 간단히 요기를 하거나 경비를 아끼고 싶을 때 적당한 식당이다.
- 한편 따볼라 깔다(Tavola Calda)라고 쓰여진 식당이 있는데 이 곳은 미리 조리된 요리 중에서 골라 먹는 음식점으로 보통 커피나 음료를 파는 바(Bar)에서 간단한 식사를 팔 때 주로 따볼라 깔다의 간판을 볼 수 있다.
- 식당 팁의 경우 고정비율이 없으며 식사에뉴에 따라 1.5 유로 내지 5 유로 정도 지불하면 되지만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식당에서 식수는 유로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2~3 유로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식수로 수돗물은 석회분이 있어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 식당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바(Bar)가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바에 들러 카푸치노(Cappuccino)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길 가다가도 바에 잠시 들러 선택로 에스프레소(Espresso) 한잔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바에서는 이탈리아의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는 파니니(Panini)도 팔고 있어 간단한 식사도 해결 할 수 있다.

- 참고로 바에는 서서 먹는 것이 기본이며 바 안에 테이블이 있어도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한식당

- 하나 (일요일 휴무)
 - 주소 : Via Lecco 15, Milano
 - 전화 : 39-02-295-232-27
- 진미 (일요일 휴무)
 - 주소 : Via Paisiello 7, Milano
 - 전화 : 39-02-29-516-394
- 가야 (수요일 휴무)
 - 주소 : Via D. Scarlatti 3, Milano
 - 전화 : 39-02-2953-1106

한국 식당 약도



□ 중식당

- 옥원
 - 주소 : Via Palazzo Reale 5, Milano
 - 전화 : 39-02-805-38-91
- 홍콩
 - 주소 : Via Schiapparelli 5, Milano
 - 전화 : 39-02-6701992

□ 일식당

- 젠
 - 주소 : Via Maddalena 1, Milano
 - 전화 : 39-02-8901-3557
- 하나비
 - 주소 : Via Francesco Sforza 14, Milano
 - 전화 : 39-02-782-610

□ 이탈리아 식당

- 사비니
 - 주소 : Galleria V. Emanuele II
 - 전화 : 39-02-72003433
- 펍
 - 주소 : Via Victor Hugo 4
 - 전화 : 39-02-861040
- 일 사로토
 - 주소 : Via Baracchini 9
 - 전화 : 39-02-860-357
- 안젤로
 - 주소 : Via Angello 8
 - 전화 : 39-02-864-61-654
- 8 월에는 이탈리아 대부분 식당이 2~3 주 휴가에 들어가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처리기간

- 번거로운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하여 일 처리가 매우 더디고 비효율적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지방정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One Stop Shop(Sportello Unico)이다.

- 이 곳에서는 이탈리아 투자에 필요한 정보나 인허가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담당자를 만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관행

- 처리기간이 매우 느리고, 행정 처리가 완벽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영수증 및 확인증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일자	공휴일명	대상지역
1월 1일	신정 (NEW YEAR'S DAY)	전국
1월 6일	주현절 (EPIPHANY)	전국
4월9일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EASTER MONDAY)	전국
4월25일	이탈리아해방기념일(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전국
5월 1일	노동절 (LABOUR DAY)	전국
6월 2일	REPUBLIC DAY	전국
6월 24일	ST.GIOVANNI DAY	플로렌스,제노아
6월 29일	ST.PETER AND PAUL DAY	로마
7월 15일	ST. ROSALIA'S DAY	팔레르모
8월 15일	성모 승천일 (ASSUMPTION DAY)	전국
9월 19일	ST. GENNARO DAY	나폴리
11월 1일	만성절 (ALL SAINT' DAY)	전국
12월 7일	ST. AMBROGIO'S DAY	밀라노
12월 8일	성모 수태일 (IMMACULATE CONCEPTION)	전국
12월 25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Natale)	전국
12월 26일	산스테파노의 날 (ST. STEPHEN'S DAY)	전국

2) 출장 지양기간

- 이탈리아 업체 대부분이 휴가를 실시하는 8 월, 연말 연시 연휴가 많은 1 월 초순, 12 월 하순은 출장 실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 도난과 분실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출장 기간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기름진 식사로 인한 질병에도 주의해야 한다. 치안이 나빠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는 대도시 중앙역, 환승역,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등이 있다.
- 도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중앙역, 환승역,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등 치안이 나쁜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고급 브랜드 제품의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등 눈에 띄는 행동과 화려한 옷차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특히 공항 또는 역에서는 도착 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척하다 금품을 훔쳐 달아나거나 길을 물어보는 척하거나 옷에 음식물 등의 이물질을 묻혀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지갑 등을 훔치는 소매치기 피해가 빈번하다. 공항·역 등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가급적 무시하고 사람이 많고 밝은 쪽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접근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낸 후 타이어 교체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도와주는 척 접근한 후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사례가 수 건 발생한 바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자동차 펑크가 나면 주위가 밝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차에서 나오지 말고 렌트카 회사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어 교체 중에는 차문을 잠그고 귀중품에 주의해야 한다.
- 여권, 항공권, 짐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 Denuncia di Furto’를 작성 해야 하며, 이 절차가 없으면 여권 등을 재 발행 할 수가 없다.

1) 여권의 분실과 도난

- 위에서 발급 받은 도난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대부분 여행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 체류 중인 여행자에게는 여권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권 재발급 대신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2) 항공권의 분실과 도난

- 항공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수수료를 내면 항공사 지점에서 재발급해준다.
- 분실한 항공권 번호를 알고 있으면 재발행을 받기 쉬우므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3)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

- 훔쳐간 사람이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신용 카드회사에 연락해 사용 정지 처분을 한 뒤 카드사의 현지 사무소로 가서 재발행 수속을 해야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1) 긴급 전화**

- 경찰 (헌병경찰): 112
- 경찰(지방경찰): 113
- 화재신고: 115
- 구급차: 118

2) 생활정보 전화

- 정확한 시보: 4161
- 모닝콜: 114

3) 택시번호

- 02-4040
- 02-6969
- 02-8585

4) 주요공항

- 로마
 - Leonardo da Vinci(Fiumicino) : 39-06-659-53640
 - Cimapino : 39-06-794941
- 밀라노
 - Linate : 39-02-7012-4451
 - Malpensa : 39-02-7485-4215

5) 한인회, 단체, 협회, 항공사

- 재 이탈리아 한인회(로마) : 39-06-4743635
- 북부 이탈리아 한인회(밀라노) : 39-02-70601638
- 대한항공: 로마 39-06-65955952~3, 밀라노 39-02-72095654

6) KOTRA 무역관

- 주소: Via Larga 2, 20122 Milano, Italy
- TEL : 39-02-795147, 795813, 796384
- FAX : 39-02-798235

타. 관광명소

1) 밀라노

□ 밀라노 대성당

- 높이 157m, 너비 92m 에 이르는 거대한 고딕 양식의 성당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로 5 개의 문중 중앙문은 천국의 문으로 불리고 이 성당에 있는 모든 문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교회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밀라노대성당은 내부의 스테인글라스와 장미창이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Castello Sforzesco)

- 비스콘티 가문이 거주하기 위해 밀라노에 최초로 지은 성으로, 1450 년 비스콘티 가문의 통치가 끝난 뒤 밀라노의 통치자였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위압적인 외관과 멋진 내부를 결합시켜 건설한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이다. 19 세기 동안 이 성은 수차례 보수되어 여전히 화려하게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내부 에는, 훌륭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으며 이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 (Michelangelo)의 마지막 작품인 피에타 롬다니니 (Pieta Rondanini)와 같은 뛰어난 작품이 많이 전시 되어 있다.

2) 베네치아

□ 산마르코대성당 (Basilica San Marco)

- 베네치아 시 중심의 산마르코 광장 정면에 있는 성당으로 2 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성마르코 유골의 납골당으로 세워진 것(829~832)인데 11 세기 말에 현재의 산마르코 성당이 재건되었는데 이 재건공사에 롬바르디아의 건축가와 석공이 상부 구조 건축에 참가했으며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유명하다.
- 외부와 내부를 뒤덮듯 장식된 모자이크 벽화는 12~17 세기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미술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며 내부는 그리스 십자형 위의 다섯 개의 큰 원천정으로 되어 있고 성마르코의 업적을 말해주는 12~13 세기의 그림을 비롯하여 티치아노의 바탕그림에 의한 모자이크 등이 장식되어 있다.

3) 피렌체

□ 산타마리아노벨라성당 (Chiesa di Santa Maria Novella)

- 1456~1470 년에 건축가 알베르티가 완성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 우아하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 비율과 색대리석판을 사용한 장식이 특징이다.

□ 베키오 궁전

- 1298 년에 착공하여 몇 번에 걸친 개수를 하여 16 세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피렌체 광화국(토스카나 공화국)의 청사였던 건물로, 현재도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 양쪽 벽면은 바사리와 그 일파가 그린 메디치의 전투장면이 있다. 3 층에는

기틀란 다요의 로마 영웅들의 프레스코화가 있고, 그 밖에 마키아벨리의 초상화, 프란체스코 1 세의 방, 지구의 방 등 옛날 피렌체의 부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

4) 로마

□ 베네치아광장 (Piazza Venezia)

- 빅토리아 임마누엘 2 세 기념관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이탈리아 초대 국왕인 빅토리오 엠마누엘 2 세의 즉위를 기념해서 건립되었다. 정면의 기마상이 엠마누엘 2 세이며 계단 서쪽에 세워진 동상중 우측은 '조국애의 승리', 좌측은 '노동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 제일 높은 층의 상부에는 이탈리아 주요도시의 상징이 올려져 있고 양측의 커다란 두 개의 문 위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있다.

□ 콜로세움

- 정식 명칭은 훌라비오 원형극장(圓形劇場)으로 훌라비오 황제 때 세워진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 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되었다. 제정기(帝政期)로마의 복원은 로마 시민의 오락시설로서, 여기에서는 글라디아토르(劍闘士)의 시합, 맹수연기(猛獸演技) 등이 시행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이탈리아 관광청(www.enit.or.kr)을 참조 바랍니다.

5) 밀라노

□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지하철 몬테 나폴레오네역에서 산 바빌라역을 연결하는 약 500m의 거리 양쪽에 세계적인 고급 명품 매장들이 많다

□ 스피가 거리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와 나란히 있는 스피가 거리에는 세계의 패션 흐름을 알 수 있는 최첨단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가 모여 있다.

□ 산탄드레아 거리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와 스피가 거리를 연결하는 산탄드레아 거리에는 대형 브랜드와 전위적인 브랜드, 전문점 등이 즐비해 있다.

□ 브레라 지구

미술 대학이 있는 브레라 지구에는 참신한 감각의 액세서리 전문점이나 센스가 뛰어난 인테리어 숍 등이 흩어져 있다.